



울릉도 성인봉과 송곳바위 (사진 李五峰(교육학61-70)논설위원)

戊子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관악춘추

미국의 대학순위를 선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여러 곳이 있다. 그 중에서 기금규모와 기금모금형태에서 동문들의 참여도를 높게 평가해 대학순위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US News & World Report이다.

이 보고서에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미국 명문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문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물론 그에 못지 않게 최소한 US\$ 1Billion(약 1조원)이상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주식, 부동산투자, 펀드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그 이익금을 학교발전을 위해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하버드대의 경우 학교가 보유한 기금을 운용해 얻는 수익금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 무려 여섯 배나 된다.

미국 국민은 매년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약 2백40조원을 각종 기금으로 내고 있다. 특이한 것은 부자들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큰 교회나 이미 충분한 발전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IVY 리그 학교들이 기부금의 최대 수혜자라는 것이다. 결국

명문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기금모금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소위 미국의 명문대가 기금모금에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또 하나의 이유는 라이벌 학교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거나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하버드대의 경우 2003년에 US\$ 18.8Bill.에 머물던 기금이 2007년 현재 US\$ 34.9Bill.에 다다른 성과도 전통의 라이벌 예일대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새로운 경쟁

모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자로 부상한 프린스턴대와의 선두경쟁에서 밀려날 수 없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와 USC(남가주대)의 경우 학문적인 평가에서 UCLA에 비해 늘 저평가되던 USC는 UCLA를 따라잡겠다는 의지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한 '최고의 학교를 만들자'라는 캠페인을 통해 모든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10년 만에 무려 US\$ 2.85Bill.에 이르는 기금을 모금해 미 대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금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이 기록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2년 뒤 UCLA도 이와 유사한 10년 캠페인 'Campaign UCLA'를 벌려 역시 10년 만에 USC가 세운 기록을 넘어서는 US\$ 3.1Bill.을 모금했기 때문이다. UCLA는 이 기간동안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가 선정한 미 최고의 리서치 대학랭킹 순위에서 UC 라이벌인 버클리를 제치고 전미 2위에, 그리고 Washington Monthly 선정 미 대학랭킹 순위에서 역시 버클리를 제치고 전미 2위에 오르는 발전을 이뤘다.

USC 역시 캠페인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이 가장 입학하기 힘든 사립대학 중 하나로 성장했다.

연간 재정규모 7천6백82억원, 기금규모 1천8백90억원(2006년 기준)으로 매년 적자재정에 허덕이며 지난 5년 동안 '서울대 폐교론'에 시달려온 서울대로서는 미국 대학 얘기가 꿈같은 현실일지 모른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이 계속된다. 2010년 세계 50위권, 2015년 세계 30위권, 2025년 세계 10위권 글로벌 대학으로 굴기하겠다는 것이 '서울대학교 비전 2025'의 핵심목표다. 새해에는 모교, 동창회, 동문 각자가 힘을 합쳐 '서울대학교의 발전이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신념으로 우리에게 꿈같은 얘기를 현실로 만들어 보자.

(安國正논설위원)

신년사

모교 돕는 보람의 공감대 넓혀나가자

창의적 지식과 기술 창출에 노력할 때

서울대총동창회 林光洙회장

서울대학교 李長茂총장

사랑하는 서울대 동문과 가족 여러분!

희망찬 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삼십만 동문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의 이념적 갈등과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나라의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고 온 국민이 본연의 생활로 돌아가 생업에 충실하며 國利民福이 증진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모교와 동창회에 있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결실을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 하반기에는 영국의 The Times가 세계대학 평가에서 모교를 51위로 발표함으로써 서울대인을 기쁘게 해줍니다. 이는 2006년 63위에 이어 12단계나 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명문대인 '에콜 데 민'이 세계 주요 기업 CEO 배출 인원을 근거로 실시한 세계 대학평가에서는 모교를 세계 32위로 한층 높게 평가해줬습니다.

어떻든 열악한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작년에 취임한 모교 李長茂총장께서 교수님들의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국제화를 위해 진두지휘해온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케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향한 고두보를 구축한 것으로 李長茂총장님과 모든 교직원들의 노고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모교는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차 법인화 등의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 재정의 자립도를 이뤄가야 하는 중요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 동문 여러분!

모교가 이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 명문대학 또는 세계 Top 10 대학은커녕 지금까지 쌓아올린 국내 최고의 학문의 전당이란 지위마저도 흔들릴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동문들은 사회에 나와서 어렵고 중요한 고비마다 뒤에 훌륭한 모교가 있다는 긍지와 은덕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교돕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모교를 돕는 보람의 공감대를 넓혀나갑시다. 총동창회도 장학발딩 건립기금 모금이 거의 마무리 되었으므로 모교와 하나가 돼 발전기금 모금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총동창회가 동문 여러분의 유례없는 관심과 참여 속에 동창회 재산 1천억원 시대를 여는 도약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립기금 모금에 관해서는 10억원 이상을 출연해 주신 분이 18분이나 계시고



기타 동문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건립기금 당초 목표액 3백억원 약정이 거의 이뤄진 것을 보고드리게 돼 기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출연 또는 약정해 주신 분들이 2천5백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장학발딩은 많은 분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고 많은 분들이 드나들며 이용하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해 모

교 발전에도 기여하고 개인의 성공적 삶을 이뤄 가는데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장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소액 출연을 독려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일반 동문 10만원, 이사 동문 30만원 이상을 내주시면 아름답고 우아하게 꾸며질 명예의 전당 벽면 동판에 모두 그 이름이 새겨져 영원히 기록될 것이오니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지난해 6월 25일 거행된 장학발딩 착공식에 이어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인접상가 입주주들과의 법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할 때 장학발딩이 완공되는 2010년 이후에는 이 빌딩의 가치가 1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뜻에서 장학발딩 사업 추진을 결심한 것은 동창회의 미래를 위해 시의적절하게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마무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총동창회가 주최한 신년교례회, 동문 바둑대회와 사은 골프대회, 흙커밍데이 등산대회 행사 등 각종 행사가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개최되면서 더욱 성숙돼가고 있습니다.

또 새해에는 중흥기의 도약 비전 플랜에 따라 해외지부와 해외 유수대학의 동창회와의 제휴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창회보다 국내의 신진과 유명 동문 언론인 40여 명을 논설위원으로 위촉, 그 어느 때보다도 동문 상호간의 가교역할에 충실을 기함은 물론 항상 모교 발전을 위한 제언 및 모교의 훌륭한 명예와 명성을 제고 또는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창간 당시의 발간 취지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발간 부수를 더욱 확대하고 내용도 질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지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삽니다!”

戊子年은 쥐띠의 해로서 옛부터 희망과 풍요와 기회의 해라고 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신 가운데 행복과 행운이 같이 하시고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뜻과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성장과 자율 그리고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회 각 영역에서의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라는 핵심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창의적 지식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자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교육과 연구가 최우선적인 투자 영역이어야 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각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에 봉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연구, 심의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이제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개방과 융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학문 분야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교육 및 연구체제를 확립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The Times가 세계대학 평가에서 서울대학교를 2006년에 63위에서 2007년에 51위로 상향 평가 했듯이 국제적 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세계 30대 대학 그리고 2025년까지 세계 10대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교육을 세계 최상급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혁신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 미래를 꿈꾸는 원동력인 상상력, 인류 복지를 증진시키는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인 창의력,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세계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그리고 리더십을 함양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겨레와 함께 세계를 선도해야 할 서울대학교는 사회발전의 동력인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연구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 및 융합 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기초학문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연구 역량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 연구가 긴밀하게 연계되고 연구의 결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 협력 체계를 강



화하겠습니다.

요컨대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해서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며, 학제적 나아가 융합적인 교육 및 연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혁신해야 하며, 중점 분야

육성을 통해 선도 학문 분야의 성공 모델을 확산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재정 확충과 더불어 합리적 평가 및 인센티브제도 구축도 시급합니다. 연구 인프라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대학경영 및 행정시스템의 선진화도 진일보시켜야 합니다.

여러 부문에 걸친 다양한 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학생정원이 대폭 줄어 등록금 및 기성회비 예산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외국 대학의 경우와 같이 동창회와 동문들이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모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작년 10월에 동문을 중심으로 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孫京植회장님, 朴容晟회장님, 尹鍾龍부회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그리고 林光洙총동창회장님을 명예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동창회 본부를 서울대학교 구내로 이전해 동창회가 모교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동창회 그리고 발전위원회를 통해 동문들께서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에 주역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동문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고 모교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확실과 동창회 그리고 발전기금재단이 협력해서 동문 여러분께서 수목원, 박물관, 미술관, 규장각, 연구소, 학과를 자주 방문하실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또한 동문들께 학내 소식을 보다 자주 전하고 대학 축제, 음악회, 미술전 등에도 자주 초대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장래는 무엇보다도 서울대학교 구성원 스스로의 책임의식과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지원이 결합될 때 발전을 위한 노력은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多産과 富의 상징이자 安居思危의 지혜를 갖춘 쥐의 해를 맞아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 만복이 가득하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戊子年, 多産·多福을 빕니다



月邨 俞 煌의 '戊子 元旦', 수묵담채, 35×26cm, 2008.

〈작가약력〉

- ▲58~64년 모교 회화과 졸업
- ▲연세대 교육대학원 졸업
- ▲벽 동인전
- ▲한국화회전
- ▲한일미술교류전
- ▲한중미술교류전
- ▲경북미술 1백년전
- ▲대구 원로작가 초대전
- ▲현재 경북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명예교수

동문칼럼

‘치매정복창의연구단’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과학기술부 지정 ‘창의연구단’으로 지정받아, 독립된 연구단 실험실을 확보하고 1년에 평균 약 7억~8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21세기 집환인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연구와 이를 기본으로 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의대 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연구단이다.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연구단이라 함은 창조적 혁신 역량을 제고시키고 기존기술의 연장선상이 아닌 과학에 직접 뿌리를 댄 새로운 기술혁신의 싹을 탐색 발아시켜서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한 독자적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연구단을 말한다.

치매정복창의연구단은 외국인을 포함한 박사연구원 6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10명, 석사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정밀 연구 중에 있다. 또한 치매와 파킨슨병 등에 공통으로 관련돼 있다고 알려진 알파시누클레인이 위급상황에서는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나 과량으로 존재할 때는 신경세포를 죽일 수 있는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보고했다. 아울러 파킨슨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말초혈액을 이용한 진단 키트도 개발해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알파시누클레인의 독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치료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술을 치매 치료에 응용하기 위해서 BT는 물론 NT와 IT기술을 접목한 융합기술을 사용해 현재 치매동물모델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는 아직 가야할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융합기술을 모두 동원한 기초적인 연구에 집중해야 하고 이런 융합 뇌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공적으로 본 연구단



徐 維 憲

(의학67-73)

모교 인지과학연구소장

치매정복창의연구단장

융합 뇌 연구 투자 확대

과정 대학원생 5명 등 총 24명의 연구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치매의 원인으로 ‘독성 아밀로이드 C단 단백질 축적’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하는 1백여 편의 논문을 국제 SCI 학술지에 게재했으며 “스트레스가 치매 발병을 촉진·악화시킨다”는 구체적 사실도 처음으로 규명해 스트레스 조절로 치매 발병을 막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아울러 병의 원인 연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차세대 치매치료제로 천연물에서 추출한 DHED(Dehydroevodiamine)와 미노사이클린을 개발해 현재 임상시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세계적 신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치료

은 과학기술훈장, 세종문화상, 5·16민족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나는 두뇌 짱이 되고 싶다’, ‘두뇌 장수학’, ‘신경전달물질’ ‘천재 아이를 원한다면 따뜻한 부모가 되라’ 등 30여 권의 뇌 관련 저서를 출판해 과학의 대중화는 물론 ‘뇌를 기반으로 한 적기교육’ 실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래과학의 꽃이며 인류최후의 도전 분야인 치매를 포함한 ‘뇌 연구’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 뇌 연구원 설립을 포함한 ‘뇌 연구촉진 2단계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며, 계획대로 잘 투자돼 우리 ‘뇌 과학’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해 명실공히 ‘두뇌 강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트리나무광장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2007 대선 정국에 온 나라가 몰입하고 있는 사이, 지구촌에선 의미 있는 이벤트 하나가 종결됐다. 지난 12월 15일, 1백90여 개국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 1만여 명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난산 끝에 ‘발리 로드맵’을 채택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후속(POST 2012) 협약이다.

2013년부터 발효될 발리 로드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 세계 제일의 온실가스 배출국하면서도 교토의정서를 끝까지 거부했던 미국이 감축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모든 개발도상국이 감축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 이 말은 교토의정서상 개도국 지위를 누렸던 우리나라도 감축 대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발리 로드맵은 우리를 옥죄는 족쇄인가? 평가자 시절 환경분야 취재에 몸담은 이후 환경저널리즘과 환경학을 공부하면서 절감한 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거였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고뇌

尹 在 錫

국민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따져보자. 우리는 미국·중국·일본 등에 이은 5위의 원유수입국이자,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그러면서도 청정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실용화 노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기업이나 지자체는 그래도 좀 낫다. 정작 정부는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식이다. 장기 계획조차 느슨한 구색 갖추기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차기 대통령이 뽑혔다. 축하인사를 건넨 새도 없이 환경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온다. 도대체 환경친화적 구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개발 만능의 마인드를 지닌 지도자라 더 우려스럽다.

潘基文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환경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구촌을 내집처럼 총괄무진하고 있다. 그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그린 경제’(A new green economics)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조국 대한민국은 오불관언이다.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린 환경’을 당대에 거덜이라도 낼 듯이... 문득 1854년 미 연방정부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오늘의 워싱턴주 일원을 강제 매입하겠다고 했을 때 시애틀 추장이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 떠오른다.

“당신들은 이 땅에 와서, 이 대지 위에 무엇을 세우고자 하는가? 어떤 꿈을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가? 땅을 파헤치고 나무들을 쓰러트리는 것이 행복한가? 연어 떼를 바라보며 다가올 겨울의 행복을 짐작하는 우리민족 (당신들은) 행복한가?”

서울大同忠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편집주간 許 瑄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 702-2233 팩스 (02) 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南仲九, 金鍾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趙在鏞, 金鍾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쥐띠 동문 10명의 새해 소망

올해는 戊子年, 쥐띠 해입니다. 쥐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약 3천6백만년 전이라고 합니다. 쥐는 인류와 함께 해오면서 많은 핍박과 억압을 받아오면서도 동시에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거해 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쥐를 혐오하면서도 쥐가 집에 없으면 집에 불이 나지 않나,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며 불안해 하기도 했습니다. 쥐는 예로부터 多産과 多福의 상징이었습니다. 



趙守鎬(24년생·회화47입)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子는 十二支 간지의 첫째 자로 동물로는 쥐에 해당한다. 올해는

뜻을 세우고 반드시 이룩하는 해로

쥐띠 해다.

쥐를 거명할 때 필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서수필(鼠鬚筆)이다. 서수필이란 쥐수염으로 만든 붓을 말하는데 서성 王羲之가 쓴 천하의 명작 蘭亭序를 쓴 붓이 서수필이기도 하다. 쥐는 총명하고 재능이 있고 부지런하다. 부정적으로는 서수분사(鼠首僂事)라

는 고사가 있듯이 “결단력이 부족해 주저하다가 일을 그르친다”는 평도 있다.

필자는 戊子年의 화두를 ‘有志者事竟成(뜻이 있으면 마침내 그 일을 이룩한다)’을 내건다. 사람은 저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재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귀한 것이다.

나는 한평생 서예가로 살아온 길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조석으로 生에 감사드린다. 따져보면 서예가의 길이 너무나 힘들었지 마는 민족서예문화를 선양하겠다는 뜻이 있어 어려움을 이겨낸 것 같다. 인간이 뜻이 있어 狂의로 심혈을 기울일 때 사는 보람을 체험하기도 했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다.

戊子年 새해 우리 다함께 뜻을 세워 멀리 내다보고 자기 십자가를 성찰하고 후회 없는 도전을 해야 한다. 인간은 모두 다 위대한 예술가다. 인간의 가치는 예술을 통해 위대해진다고 했다.

쥐띠로서 쥐띠를 맞이하는 감개가 무량하다. 올해의 나의 소망은 자기변신이다. 東江體를 보다 현대적으로 가치롭게 전무후무한 경지로 창신했으면 한다. 우리 다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자.

1955년 문리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했을 때, 필자는 장차 사회의 사(Social doctor)가 되어 온갖 사회부조리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려 했다.

1970년 모교의 부름을 받아 사회학과 교수가 됐다. 한국사회를 제대로 진단하고, 사회 모순의 치유를 위한 처방을 내리는 것은 70년대 상황에서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다. 두 번에 걸쳐 해직을 당하고 재야에서 민주화 인권운동에 가담하게 됐다. 민주화 과정에

후배들이여, 멋지게 저주면서 살자

서 두 번씩이나 입각해 사회의사다운 역할을 감당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2004년 늦게, 나는 뜻밖에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부름을 받았다. 재난과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적십자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그것은 바로 인도주의 정신으로 평화와 생명과 건강의 가치를 증진시키려

는 국제운동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총재로서 정말 신나게, 의미 있게, 인도주의 활동에 매진했다.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나는 정말 오랜만에 쉼을 즐기려 한다. 그런데 어릴 때 사회의사가 되고자 했던 그 꿈을 내 인생의 황혼기에 와서 적십자운동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흐뭇했다. 사

회의사는 사회·육체적 고통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있어야 하는 소중한 존재다. 은퇴해도 그 역할은 사라질 수 없는 것 아닐까.

나는 자괴하는 심정으로 2008년 새해를 맞아 후배들에게 한마디 덕담을 남기고 싶다. 우리는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 멋지게 서로에게 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은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적십자연맹 총회 때 일본 대표들과 한 이야기다. “Let’s try to lose graciously in order to win



韓完相(36년생·사회55-60)
前대한적십자사 총재

together elegantly.” 이것이 모든 평화를 꿈꾸는 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정신이 아니겠는가!



李仁子(36년생·가정교육55-59)
서경대 석좌교수

17대 대선에서 李明博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이 되면서 온 국민은 축제 분위기로 환호했다.

60년 만에 戊子年이 드디어 돌아왔다. 멀게만 느껴지던 耳順이 어느새 내 옆에서 ‘친구’라고 말한다.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지는 실수도 있었고 또 늘 눈물지를 만큼 감동 어린 장면도 있었다.

연구원, CEO, 정부 관료 그리고 대학 총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력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변하지 않고 필자에게 남아있

국민의 자긍심 세워줄 새 정부 기대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년 동안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앉아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자만과 독선에 빠져 몰상식한 전횡을 일삼았기에 형편 없이 된 이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반기를 든 국민의 선거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내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필자가 찍어 대통령이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엔 내가 선택한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더없이 감회가 깊어 개표 현황을 지켜보며 함께 환호하고 함께 기뻐하며 자정이 넘도록 축제의 현장을 지켜봤다. 그것은 온 국민의 축제의 한 마당이었다.

사람들은 가끔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자기가 아니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특히 정치인들의 착각과

오만은 국민의 빈축을 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민주화에 앞장섰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는 것을 큰 훈장인양 내세우고 대학 나온 사람, 집 한 채라도 지닌 사람은 부정하게 살아온 사람인양 낙인을 찍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고개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교육수준 세계 최상위권인 이 나라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대학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을 뽑아 놓고 정치를 잘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일 이었던가? 그들은 규칙도 모르는 채 경기에 뛰어든 심판처럼 경기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이제 온 국민의 자긍심을 세워줄 수 있는 자질과 실용주의 국가경영철학을 지닌 李明博대통령 내외분이 청와대로 입성을 하게 됐으니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세계 속의 선진 한국이 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훈훈한 마음으로 지켜 볼 일이다.

‘인연·나눔·같음’을 함께 느끼자

는 것은 언제나 생각해도 ‘그리운 사람들’이다.

요사이 서울대 출신에게 던지는 최고의 찬사가 ‘서울대 나온 사람 같지 않다’라는 말이라고 누가 우스갯소리를 한다. 실력이란 나이에 반비례해서 떠나가고 인연은 나이의 제곱으로 달라붙는다고 한다. 그 인연을 털어 버리는 사람

은 경박해지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든든한 감투를 입은 것과 같이 삶이 깊어지는 법이다.

모든 인연은 몇 겹을 통해 생겨난 ‘업’으로 맺어지는 것이니 어찌 한자 깃털처럼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을 것인가. 작은 하나 하나의 인연에 끝없는 사연이 있음을 이해하고 진정성을 갖고 소중히

간직하면 우리 인생이 한결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번 쥐띠 해는 푹푹하고 부지런하면서도 서로 같이 ‘모여 사는’ 동물의 해다.

모두가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운명체임을 느끼는 한 해가 되라는 뜻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의 화두를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인연’과 ‘나눔’과 ‘같음’을 느끼자는 의미에서 ‘感’字를 쓰고 싶다. 우리 푹푹하고 논리적



李相哲(48년생·전기공학67-71)
광운대학교 총장

인 서울대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글자가 아닐까 한다.



鄭光和(48년생·물리66-70)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2008년 과학기술계의 발전 기원한다

2008년 쥐띠 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로 탄생한 대통령에 거는 국민적인 기대가 큰 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경제를 살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고 국민들이 분

열되지 않고 성숙하고 서로 화합하는 사회로 이끌어주시길 바란다.

더불어 신년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위상이 높아져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돼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라지기

를 바란다.

연구원에 대한 대우가 대폭 좋아지고 정년 및 연금 문제가 해결돼 우수 연구원들이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우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세계 국가표준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많이

내서 국내외 석학들이 우리 연구원에 방문 연구하기 위해 줄을 서게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연구원 식구 모두가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그리고 각자 자신의 소망을 이루길 바란다.

☑ 쥐가 신앙물로 받아들여지는 12지신에 들면서부터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12지신에 쥐는 맨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쥐는 음양오행상 陰과 水性, 방위로는 북쪽, 시간으로는 밤 11시~오전 1시 사이를 나타냅니다. 낡은 것을 마감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쥐띠 해는 새로운 일을 하는 희망의 해이기도 합니다. 쥐띠 동문 10명에게 2008년에 하고 싶은 일, 소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쥐띠 동문 10명의 새해 소망



金映宣(60년생·공법81-85)
국회의원

바야흐로 컨버전스, 즉, 융합이 화두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

융합 통한 국가 비전 제시하겠다

아있는 방송·통신융합을 비롯해 핸드폰·MP3 플레이어·전자사전을 하나로 만드는 컨버전스 제품들은 이미 새로운 일도 아니다. 첨단기술간 융합, 첨단과 전통 기술간 융합, 학제간 융합, 기술간 융합은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발전을 이룰 엔진동력이다. 가령 IT, NT를 BT에 접목해

유전자, 단백질 등의 구조·성분·기능 등을 고속으로 정확하게 분석해 질병 진단, 신약 개발에 필수정보를 제공하는 ‘초고속 고정밀 생체분석 시스템’만 하더라도 그 개발여부에 따라 2010년도 3백억 달러 이상의 헬스케어 시장과 76억 달러 이상의 바이오센서칩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

다. 나아가 2015년까지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통해 40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창의력이 경쟁력이다. 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 각 부문을 통합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다. 융합의 화두는 시너지에 있다. 단순히 맛있는 재료들이 모여져 맛있는 요리로 태어나는 비빔밥식 융합이 아닌, 배추와 소금이라는 평범한 재료들이 발효의

과정을 거쳐 김치로 태어나는 신개념의 융합이다. 정치인으로서 필자의 2008년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이 되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새 비전을 제시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제 3선에서 4선으로 넘어가는 의원으로서 그동안 몸담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넘어 전국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사안에 대한 통섭을 통해 국가 비전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서울대인은 그간 국가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책과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해 농생대 수목원에서의 총동창회 흠커망데이 행사가 여론의 뜨거운 질타를 받은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울대 출신의 사회적 책임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한국사회에서 서울대의 의미가 한국판 ‘썸

한 가지라도 세계 최고 대학으로

썸이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일종의 문화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서울대만이 최고이고 최고여야 한다는 그 독선과 오만의 뿌리에는 ‘간판 제일주의’와 ‘학연 만능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문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잘못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풍족한, 혹은 만족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그 곳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서울대인으로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며 끊임

없이 노력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울대가 세계를 선도할 명문대학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대학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교육과 연구, 조직,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선택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교수와 학생·학부모, 충분한 재정, 자율경영, 구성원들의 발전의지로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한국의 대학이기보다는 특정



河泰銀(60년생·수의학80-8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무관

부분에서 최고인 세계 속의 대학이 돼야 할 것입니다.



河昇澣(72년생·경영90-94)
클럽프렌즈 대표

새해에는 다양한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하고 싶다. 배울 것이 많

다양한 친구 초대해 파티 열고 싶다

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사상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 듣고 싶다. 문화와 사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적인 사람들과 사교를 나누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눈부신 매력을 느껴 보고 싶다. 인류의 역사에서 리더들은 언제

나 훌륭한 사고 파티 문화를 향유해 왔고, 음악, 미술, 건축 등 인류 문화와 예술은 사고 파티를 통해 꽃피워졌다. 소득 2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파티라는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한국은 사고 패전의 대변화를 맞고 있다. 자연과 학연을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파티가 꼭 필요하다. 문제는 사교의 방법이다. 매일 술에 곤드레만드레 돼서야 진심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사람을 사귀는 방식은 20세기 사교 방식으로는 시간과 노력의 한계가 있고, 효과적인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사교가 중요하다는 명제를 많이 공감하면서도 흔히 ‘사교’ 또는 ‘파티’라고 하면 ‘나는 어울리지 않아’ 하고 머쓱해지는 친구들이 많다. 이 친구들에게 좋은 사교법을 알리고

싶다. 시간과 힘을 덜 들이면서도 좋은 친구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도록 만들고 싶다. 사교는 문화의 꽃이다. 사교문화는 앞으로 수세기간 한국이 세계 리더로 활동하는 시기에서 도입해야 할 소중한 인프라이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파티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하이라이트이며, 세계의 리더로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기술이다.

2007년도가 이제 막 지나갔다.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앞만 보고 부지런히 살아온 것 같으나 한편으로는 아쉬움 또한 많이 남는다. 필자는 암환자를 진료하는 종양내과 의사이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암환자들과 지낸다. 참으로 많은 암환자와 보호자를 보게 된다. 정말 요사이 암환자들이 많다. 그리고 암환자들은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건강검진 중요성 더욱 인식했으면

그렇다. 조기에 진단을 받아 잘 치료해 완치가 되는 분들이 계신 반면,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아 완치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다. 특히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처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태도는 매우 다양하다. 의연하게, 긍정적인 태

도로 남은 하루하루를 가족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며 생을 정리해 나가는 분들이 계신가하면, 돌아가시는 날까지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우울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신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보면서,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

곤 한다. 2008년은 쥐띠 해이다. 늘 그렇듯 항상 ‘새로움, 출발’에는 기대와 설렘이 동반된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암은 조기검진이 중요하므로,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을 일반 국민들이 더 잘 인식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암 치료를 위해 연구에 더욱 매진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吳燾年(72년생·의학91-97)
모교 병원 종양내과 조교수

동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金恩(84년생·간호03-07)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지난 2007년은 학교 울타리 안에만 머물던 제가 사회생활의 첫

작심삼일을 끊임없이 반복하자

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지니는 한 해였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된 사회생활의 첫 해를 보내고 뒤돌아보니 남아있는 계획들이 눈에 밝습니다. 말로만 들던 사회 1년 차를 몸소 체험하면서 일에 적응하는 데 급급했던 나머지 포부를 가지고 세웠던 계획들을 결국 다음해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인지 다음해가 더욱 기대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맞이하는 새해가 12년에 한번 씩 찾아오는 저와 관련된 ‘쥐띠’ 해라니... 올 한 해를 기대하는 저에게 더 큰 힘이 되 줍니다. 특히 이 戊子年은 20대의 정 확히 반을 보내는 나이와 함께 찾아

왔기에 올 한 해의 소망은 저의 남은 20대를 보내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목표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말을 어느 책에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올 한 해 확실해질 제 목표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비록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지언정 반복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을 시도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폐지해를 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쥐의 해는 다른 어느 해로 바뀔 때보다도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듭니다. 아마도 옛 전설 속 1등을 한 ‘쥐’에게서 느껴지는 기분이겠지요. 얼마 전 새 대통령이 뽑히고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 또한 많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한 해 각 개인에게도 찾아오는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목표를 이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송년 편집회의 겸 운영위원회 성향

장학빌딩 소액 모금·발전기금 확보에 박차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2월 12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19층 대화실에서 송년 편집회의 겸 동창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본회 사무총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는 최근 10년간 정부 지원 예산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초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서울대인은 누구나 이를 유념해 모교 돕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학빌딩과 관련해 “2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건립 소요액 3백억원을 달성하며 10억원 이상 출연해 주신 동문이 18명에 이르며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유럽 등 많은 해외 동문들께서 참여해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동창회관은 몇 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30만 동문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새해부터 모교의 발전기금 모금에 지장 없게끔 많은 동문이 소액 모금에 적극 참여해 모래알 같다는 서울대인의 인상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李長茂총장은 모교 현황 보고에서 “지난 1년간 명문대학들과 교류하면서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5백여 개에 이르렀고, 이제 서울대는 국내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지도자로 양성하는 대학이 됐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프랑스 명문대학인 ‘에콜 데 민’이 세계 주요기업 CEO 배출 인원을 바탕으로 실시한 세계대학 평가에서 모교가 32위에 오른 것을 강조하면서 “이는 우리 기업이 대학보다 훨씬 앞서가고 졸업생 여러분이 더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혁신을 위한 자체 노력과 대학의 생명인 자치, 자율 그리고 비판정신을 지키고 더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金在淳 명예회장은 건배사에서 “지구에 온 화성인에게 각국의 과학자들이 한마디씩 질문을 했다면, 한국의 과학자는 마침 대통령 선거 때여서 ‘화성에도 대통령선거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서두로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어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동안 한국인은 새삼스럽게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지성들은 하나같이 세계의 큰 역사 흐름이 문명사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것을 감득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이상으로 그 물살이 빠르는데 이것을 국민에게 목이 터질세라 외치는지 보고 싶었고, 내일이 약해져 가는 우리네 사회구조를 제대로 진단해

회복할 것을 외치는 지도자의 말을 듣고 싶었다”고 역설한 뒤 “어렵게 어렵게 탄생하는 새 정권, 새 대통령에게 신의 풍성한 축복이, 그리고 조국의 흥성과 모교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찬을 마친 후 가진 덕담시간에서 李御寧 前문화부 장관이 동문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과 동창회보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李 前장관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재학생과 동문간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스탠퍼드대 공학도였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대학원 시절 구글(Google) 검색엔진을 만들어 동료와 교수들의 도움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벤처회사를 탄생시켰고, 하버드대 학생들이 만든 페이스북(facebook)이 전 세계 대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기성세대까지 끌어들이는 커뮤니티로 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면서 Creative Capitalism(창조적 자본주의)을 언급했는데, 창작물에 대한 일정 권리를 보호하면서 함께 이용해 나가자는 Creative Commons 운동이 확산된다면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대 위기론이 팽배하던 시절 동창회보에 대담 내용이 실린 후 여러 분야의 동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창회보가 어느 특정한 단과대학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과를 아우르는 훌륭한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며 “동창회보가 인터넷에서 걸러지지 않은 정보까지 걸러내는 최고의 지성지가 되고, 모교와 동창회가 서로 적극 도우며 ‘융합’을 통한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姜信浩 문·金在淳 명예회장·林光洙회장·孫一根治상임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 모교 李長茂총장·權斗煥대학원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관악 언론인회 安秉勳 전임회장·南仲九 회장, 각 단과대학 및 특별과정 동창회장, 본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表)

관악회 103차 이사회

예산안 및 특지장학금 운용 논의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12월 17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19층 석류실에서 제10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 林光洙이사장, 洪性大상임이사, 李禮植·明泰鉉·申明珪·孫一根治·權永昊·朴明潤·朱鍾南이사, 朴英俊·金一燮감사, 許瑄사무총장이 참석해 장학빌딩 건립과 관련 2008년 예산안 및 장학금 운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林光洙이사장은 “건립기금 모금에 18분이 10억원 이상을 출연해 주시는 등 많은 분들의 협조에 감사한다”며 “될 수 있는 대로 동창회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급계약시 선수금(90억원)을 주지 않았고 내년 기성고 지급도 최소한으로 하도록 지시해 왔다”고 말했다.

洪性大상임이사는 특지장학기금 관리와 관련해 “현재 모금된 기금은 금액과 출연자, 출연시기가 모두 달라 개별관리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이제는 장학빌딩 건축비 기성고 지급에 총당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만기분부터 공동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설명과 아울러 “이번 장학빌딩 건립을 계기로 마련된 특지장학회 기금에 대해서는 출연 후 1년이 된 시점부터 이사회에서 정한 이자액을 지급해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유보된 금액은 장학빌딩

완공 후 임대 수입으로 보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학빌딩 기금 모금 시 기존 특지장학회 원금은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갈음해 운영하며, 2005년 11월 이후 모금된 장학빌딩 기금 중 5천만원 이상 출연자의 기금은 특지장학회를 설립, 매년 소정의 은행 금리 이상의 이자를 각 통장에 적립해 개별 장학사업에 사용키로 한 바 있다. 이날 배포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장학빌딩 공사비로 58억5천만원, 장학금으로 5억원 등 총 65억4천6백40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악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창회 직원 2명을 관악회로 보직 변경시키기로 의결했다.

장학빌딩 건립기금

동문 4명 1천만원씩

지난 12월 21일까지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한국단자공업 李昌遠(법학55-60)사장, 서영엔터프라이즈 石學鎭(상학58-64)회장, 포스코 金商鎬(법학72-76)상임고문변호사, HCC 韓珪鐸(원자핵공학73-77)대표가 각각 1천만원을 출연했다.

장학빌딩 건립 후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가 설립되며, 본회 장학금 수여시 때 기금을 출연한 동문이 직접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南)

제10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 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08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702-2233·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8년 3월 21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제5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후보 추천

1. 추천대상 : 서울대 출신으로 국내외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에 근무하는 언론인, 언론사 경영인, 언론 학자, 언론단체 종사자, 언론정책 담당자.
2. 추 천 인 : 1)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의 대표, 주필, 주간, 해설위원장, 편집 보도국장, 편집장 등 부서장
2) 언론단체의 대표
3) 대학 언론학 학과장, 대학원장
3. 심사대상 :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적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공적도 참고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추천서 : 후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이력 및 경력, 공적 개요, 추천 사유를 명기한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해 E-mail (snua1969@empal.com)로 접수시켜야 함.
2) 공적 자료 : 주요 기사, 방송 자료, 논문, 공적서를 파일화해서 E-mail로 접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 가능.
5. 추천기한 : 2008년 1월 31일 밤 12시
6. 수상자 발표 : 2월 중순
7. 시 상 식 : 2월 정기총회
8. 문 의 : 02)886-2219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

‘재계의 외교관’답게 경제·국제분야 성장 이끌어

동문을 찾아서

신년 대담

具 平 會 (주)E1 명예회장·분회 고문

지난해 10월 모교 개교 61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賞을 수상한 (주)E1 具平會(정치47-51 한미협회장)명예회장은 LG창업과 성장의 중역이자 한미경제협회의 회장, 한미경제회의 의장을 비롯해 한국무역협회장을 연임하며 코엑스 건립과 아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내 컨벤션 산업 및 무역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분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쾌척한 바 있다.

그동안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동창회 발전에 헌신한 具平會명예회장을 만나 동창회와의 인연, 장학빌딩 기금 출연 동기 및 ‘재계의 외교관’으로서의 지나온 시절에 대해 들어왔다.



대 담 : 본보 金鎮國논설위원 (중앙일보 국제부문 에디터)

— 분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쾌척하신 데 이어 지난 10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되시는 등 올 한 해 모교에 대한 기억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선 부족한 제게 뜻 깊은 상을 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방 후 혼란기에 모교에 입학해 전쟁 중 부산의 전시연합대학에서 졸업장을 받은 연유로 그동안 제대로 된 모교 졸업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동문들께서 주신 상을 명예졸업장 삼아 고이 간직하고자 합니다.”

— 근황을 소개해 주신다면.

“경영일선에선 95년에 물러났으니 이제 후대들에게 경영을 일임하고 나서지 않는 편입니다. 평생을 기업을 일구고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하며 80을 넘기고 나니 이제 좀 여유를 찾아야겠다는 싶습니다. 아니, 차라리 하나 하나씩 정리하고 비워내고 있다고 해야겠죠. 그러나 평생 분주히 살아온 버릇 때문에 별일이 없는 한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미협회 등 몇몇 단체의 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 마포 옛 동창회관을 건립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총동창회와의 인연은 꽤 오래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뽀뽀이 흠어져 있던 단과대학들이 국립 서울대학교로 통합되면서 관악 시대가 열렸는데, 단과대별로 그 뿌리가 워낙 깊어 재학생과 동문이 하나로 뭉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동창회 설립 후 열심히 참여하던 중 모교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관악회를 만들게 되면서 제가 창립멤버로 현재까지 관여하며 조금씩 지원해 왔습니다.

마포에 총동창회관을 지을 때도 당시 金堉成부총리께 간곡히 요청해 그 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습니다. 林光洙회장이 취임한 후 장학빌딩 건립내용을 살펴보니 이를 추진하는 데 고생도 많이 했고, 앞으로 완성시키는 데도 고생을 참 많이 하겠구나 싶어 당연히 힘을 보태야겠다는 마음에 10억원을 한꺼번에 출연하게 됐죠.”

— 경영자로서는 은퇴하셨지만, 지난 11

월 제6회 한미 친선의 밤을 개최하셨는데,

“2001년 한미협회장 취임 후 ‘한미우호상’을 제정해 올해 도널드 P. 그레그 前주한 미국대사에게 수여했습니다. 매년 양국 각 분야의 주요인사들이 교류하는 민간외교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미친선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제가 조금 희생을 해서라도 재정적 기반을 다져 이러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죠.”

한국무역협회장 연임하며 코엑스 건립·아셈회의 개최 ‘한국에 양보하라’ 발언으로 한일 월드컵 실마리 열어

—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한미관계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한미협회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는 민간관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안보·통상·국제외교분야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교류와 서로간에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주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국내의 학자들이 한미안보에 대한 로드맵을 연구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드러내놓고 보단 스폰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 ‘재계의 외교관’으로 알려져 계십니다. 그동안 보람된 일도 많았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으실텐데,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 일까요.

“저에게 그런 과분한 호칭을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기업을 하다 보니 정계와 재계, 나아가 한국과 세계 속에서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아보려는 의도에 가까이 그런 역할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외교력이 부족했던

한국적 기업환경 역시 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본과 자원이 열악했던 한국의 경우, 누구라도 만나고 누구라도 설득해 한국 재계의 입장을 관철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람됐던 것은 일본으로 거의 유치가 확정적이었던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고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과 역동성을 세계에 보여줬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이끈 과정을 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를 회상하신다면.

“사실 전 축구와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제 고향 진주시투리로 ‘축구’는 ‘명칭하다’란 뜻이거든요. 축구에 ‘축’자도 모르는 제가 월드컵 유치운동을 했으니 돌아켜 보면 참 ‘축구’했죠. (웃음) 李洪九총리 후임으로 월드컵 유치위원장에 추대된 것이 1994년이었는데, 들어가보니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몇 년 전부터 표발을 착실히 닦아온 터라 멀쩡감치 앞서 있었고, 유치활동을 위한 재정기반도 전무하다시피 했죠.

월드컵이란 행사는 외양상 스포츠 행사이지만 그에 앞서 국가간 외교력이 총동원되는 가장 정치적인 유치과정을 거치는 까닭에 체육계의 유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鄭夢準부위원장이 직접 투표권을 가진 체육계 인사들을 설득했다면, 저는 배후에서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펴는 역할을 했죠.

이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994년 한일 양국 유력인사들이 참여했던 한일 포럼에서 제가 한 발언입니다. 행사가 끝나갈 때쯤 작심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일 양국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를 위해 월드컵을 한국에 양보하라’고 말이지요. 돌출 발언에 황당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분

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은 계산 끝에 공동개최에 대한 일본 재계의 협조를 염두에 두고 던진 말이었지만 내심 걱정도 되더군요. 다행히 그날 저녁 저를 찾아온 일본 경단련 회장이던 도요타 쇼이치로 회장과 공동개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일본 재계가 공동유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의기투합할 수 있었습니다.”

—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만 아마도 다시 청년시절로 돌아가 꿈을 펼쳐보라면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모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할 때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이 국제정치학, 그 중에서도 국제기구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1951년 6·25의 와중에 대학을 졸업한 저에겐 국제정치는 꿈과 같았죠. 그 후 잠시 현실정치에 참여했다가 내 길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평생을 기업인으로 나를 규정하고 살아왔지만 요즘 국제무대에서 맘껏 능력을 발휘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많이 부럽죠.”

— 1954년 민간 기업의 첫 뉴욕주재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해외활동도 활발하게 하셨는데, 당시 일화를 소개해 주신다면.

“1954년 당시에는 해외에 나간다는 일 자체가 힘든 때였습니다. 국민소득은 80불 수준이었고 해외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으니까요. 비자도 나오지 않아 때마침 멕시코 시티에서 주니어챔버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한국 대표로 참가한 뒤 뉴욕에 들르는 방법을 택해 2년 넘게 머물게 됐습니다.

정부기관도 변변히 해외에 사무소를 내지 못했던 시절 맨하탄에 국내 민간기업의 첫 해외주재원으로 도착했을 때의 막막함이 기억에 뚜렷합니다. 타자기 하나 있는 작은 사무실을 꾸리고 미국 콜게이트사 주변을 맴돌며 저의 모든 영업수완을 동원해 기업가와 기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치약 제조기술에서부터 다양한 핵심기술을 수집했고, 형님이신 具仁會 LG창업주께 세계 경제의 동향과 신사업 관련 정보들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小國인 한국이 살길은 세계와 교류하는 것이며, 항상 글로벌한 관점에서 Business를 고민해야 한다는 제 나름대로의 국제감각을 익힌 게 아닐까 싶습니다.”

— 그 시절 영어를 잘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외국어 실력은 어떻게 쌓으셨는지.

“어릴 적부터 영어를 좋아한 것도 있고, 중학교 시절 여담입니다만 제가 전교에서 영어성적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인 영어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서 술 한 잔 얻어먹고 Japan Times를 종종 읽어줬습니다. 해방 후엔 지금의 남대문 도서관 자리에 영어어학원이 생겨 2년 정도 배웠습니다. 그때 한국열차는 유리창이 다 깨져 있었고, 좌석은 스프링만 남아 석탄가루를 마시면서 선 채로 서울과 부산을 오갔었는데, 미군열차에 영어 몇 마디만 하면 현대식 미군열차를 공짜로 얻어 타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죠.”

— 한국무역협회장 시절엔 삼성동



“국립이라는 울타리서 벗어나 경쟁력 갖춘 대학 되길”

☑ 코엑스 건립과 아셈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죠.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朴龍學씨가 취임해 회장을 맡던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사퇴압력을 받게 돼 제가 후임자로 거론됐는데,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 임기를 다 마치면 다음 회장을 맡겠다고 버텨 95년 총회에서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회장을 연임하며 저 역시 월급도 안 받으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업에 올인했는데, 언론에 잘못 비쳐져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건강까지 악화돼 99년 3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가장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코엑스 아셈센터 건립사업이었죠. 당시 한국의 경제 규모로는 1조4천억원이나 드는 시설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내심 코엑스 아셈센터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벤션 산업이라는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사히 마무리됐고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죠. 또 요즘 지방마다 코엑스를 본딴 컨벤션 시설이 생기는 걸 보면 당시 제 예상이 틀리지는 않은 듯 합니다.”

— 역시 설립을 주도하셨던 호남정유(현 GS칼텍스)가 GS소속이 됐는데, 아쉬움은 없었는지.

“제가 사람인 이상 아쉽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일 테지만 미련은 없습니다. 1960년대 허허벌판이었던 여수에 민간기업이 대규모 외자를 도입해 그것도 석유화학업을 일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어쨌든 호남정유는 현재 가장 모범적이며 성공적인 한미합작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개인적으로 자랑스롭습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모름지기 가지려면 어려워지고, 버리면 더 큰 게 생기는 것 아닐까요.”

— 함께 나누는 문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구씨와 허씨간 아름다운 동업을 부러워합니다. 비결이 있다면.

“사돈과의 동업은 서로간의 믿음이 확고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허씨 집안과는 고향인 경남 지수에서 선조 대대로 존경하고 사귀어 왔고, 두 가문간 친분을 유지하는 바탕에는 信賴와 中庸의 정신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집안의 가풍이 오랜 유교적 전통 위에 절제의 정신이 몸에 배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 LG의 인화정신도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무릇 조그만 한 것은 접어 두고 기본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자제들에게 경영을 맡기셨는데, 만족하시는지.

“열심히 뛰어 제가 처음 맡은 구간을 납보다 뒤쳐지지 않고, 다음 주자에게 무사히 baton을 넘겼으니 이제 뛰는 것은 후세들의 몫이죠. 또한 2세대들은 컴퓨터와 인터넷 세대인데 낡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들에게 충고한다는 건 난센스입니다. 세대마다 그 세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제가 나서면



학우들의 치열한 사상논쟁과 국립대 설치령에 대한 학내소요가 계속됐고, 이후 6·25가 발발했으니 평온하고 학구적인 대학 시절과는 분명 거리가 있었죠. 그렇지만 당시 친구들은 해방 후 조국에 대한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있어서 모두 정치·외교·언론계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월북했던 친구들도 그 곳에서 성공했으니 모교 동문들의 역량은 대단한 듯 합니다.

문리대 친구들과는 웃고 떠드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聯誼會’란 이름으로 자주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친하지만 방송작가로 유명했던 韓雲史나 프랑스 대사를 지냈던 鄭一永 등과는 허물없이 지내죠.”

— 정치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정치에 대한 꿈은 없으셨는지. 또 사업을 하시면서 전공이 도움이 됐던 적은 언제인지요.

“전시에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피난 정부에 근무하며 내무부 소속으로 잠시 정계에 몸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을 담당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발췌개헌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현실정치는 제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정계를 떠나 이후 줄곧 기업에서 활동해 왔지만 이때 익힌 Political Mind가 많이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경제 역시 정치와 분리될 수 없었던 한국적 정치현실 탓이기도 하겠지만 국가경제의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의 경제 독재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이 필요했던 현실을 고려한다면 정치와 경제의 밀착은 일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악으로 평가해야 할 점도 있다고 봅니다.

여하간, 현실정치에 거리를 두고 살아왔으나 기업가로서 정치학을 공부했다는 태생 덕분에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인연은 각별해 정계에 친분이 두터운 편입니다. 이런 까닭에 가끔 정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농을 하기도 하죠. ‘내 인생에 가장 큰 성공은 기업인으로서 욕심부리지 않고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이죠. (웃음)”

— 당시 국회의원 출마 제의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화당 창당 멤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집권당과 소속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되는데 형님이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제가 정치학과 출신이고 하니 자기들 마음대로 제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공화당 당사를 몇 번이고 찾아가 끝까지 안 하겠다고 사정을 해 1분 만에 이름을 집어넣은 것을 취소하는데 석 달이나 걸렸습니다.”

— 팔순을 기념해 독특한 화보형태의 회고록을 내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실정치를 떠나 기업인의 길을 걸어왔지만 항상 기업과 경제 이면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군요. 두 분야가 분리될 수 없는 시절에 기업활동을 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곡절을 겪기도 했

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모아 회고록을 한번 써보아겠다고 생각했죠. 제목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의 정치와 경제의 이면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이창’(Rear Window·히치콕 감독의 영화제목이기도 함)으로 정했구요.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는 이런 회고록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팔순을 맞으려다 주위의 강권에 지금껏 분주히 살아온 생을 간략히 정리도 할 겸 또 도와주신 분들과 그 추억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부끄럽지만 화보집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 협회 일도 관여하시고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시면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젠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좋아하던 테니스와는 멀어진 지 오래고, 그래도 가끔 골프는 합니다. 요즘은 젊은 시절 즐기던 등산을 계속했다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골프를 하면 하루가 즐겁고, 테니스를 치면 이틀이 유쾌하고, 등산을 하면 사흘이 상쾌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등산은 운동효과도 좋을 뿐더러 기분전환에도 더없이 좋은 취미죠. 가끔 나가는 골프 외에는 주로 독서와 화초를 가꾸면서 시간을 소일합니다.”

— 아호가 ‘松崗’이신데, 호를 갖게 된 경위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선친의 호가 ‘春崗’인데 국회 부의장을 한 형님(具泰會·LS전선 명예회장)이 ‘春’을 가져갔기 때문에 동생(具斗會·극동도시가스 명예회장)에게 빼앗길까봐 ‘崗’자를 얻은 가져왔습니다. (웃음)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가 좋아 소나무 ‘松’자를 택해 호를 송강(松崗)이라 지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저를 ‘PH, KOO’로 부르니 영어로는 제 호인 松崗 즉 ‘Pine Hill’과도 뜻이 통해 제게는 딱인 것 같습니다.”

— 모교가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모교를 부를 때 ‘국립’ 서울대로 지칭하는데, 바로 이 국립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막상 모교가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국립’이라는 울타리에서 안주한 것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 National이란 단어는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어감도 좋지 않습니다. 뭔가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현재 모교가 추진 중인 일련의 개혁과정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작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동문들의 지지와 헌신이 있을 때, 모교는 서울대 하나의 이름만으로도 세계적인 대학이 돼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李五峰는설위원·정리=表智媛기자)

홀로 뉴욕주재원으로 근무하며 치약제조 등 핵심기술 얻어내

“나도 모르게 공화당 입적... 명단서 삭제하는데 석 달 걸려”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무대의 주연에서 조용히 객석으로 옮겨 박수 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세대이지만 오랜 시간 일반 사원들과 근무하며 기업문화를 익혔고, 철저한 검증과 연차에 이르러서야 경영자의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별다른 부침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 전시 중 대학을 졸업해 학창시절 기억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자주 연락하시는 동창이 있다면.

“해방 후 경성대학에 입학해 학창시절

새해 각 지부·단대 동창회장 새 출발!

관악시단

새

曹 徹 煥

(국문63-67)아주대 교수·시인

늦대접에 맑은 물 담아
시누대 그늘에 놓아두고
아침마다 새 날아와 목욕하기 기다린다

늦대접이 대웅전만 하고
시누대 그늘 찾아오는 길이
천축(天竺) 가는 길만 한

새는 온몸 뒤척여 물썰질하고
지극정성으로 큰 절 올린다

미역줄기 같은 울음으로 짝을 부르고
햇빛이 찢어져라 날개를 툰다

극락 만나고 떠난 빈 자리
우레 소리 나머지 울려 꽃 흔들린다



부산지부동창회

새 회장에 宋圭政동문

부산지부동창회(회장 河基成)는 지난 12월 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동문 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權鍾大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총회에서 河基成회장이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文貞奎(건축52-56) 명예회장·李龍二(무역63-69) 감사, 尹宗相(체육교육52-56)·夫龜旭(법학70-74) 자문위원, 李禎相(상학59-65) 상대동창회장, 전임 鄭翼株(전기공학68-72) 마로니에회장·都弘吉(중문61-65) 간사장·安智煥(성악73-77) 총무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宋圭政(사학63-67 윈스틸 회장) 동문(인터뷰 15면 참조)을 선출했으며, 감사에 李龍二동문을 재선임했다. 2부 송년음악회에서 金文圭(체육교육66-70 부산고대 총장) 사대 동창회장의 부인인 김용선 씨(사진)가 전통춤인 살풀이를 선보였으며, 부산대 국악과 출신 재학생들로 구성된 퓨전 국악그룹 '아랑'이 가요·민요·팝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줬다. 한편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서 文貞奎명예회장이 1백만원을 출연하는 등 총 4백27만원을 모금했으며, 이날 행사를 위해 공대동창회·尹宗相자문위원·金文圭·金根培(조선항공64-68) 동문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

金錫來회장 선출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裴相環)는 지난 12월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까백' 골프장에서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 결과 단체전에서 공과대학이 작년도 우승팀인 농과대학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상금과 함께 총동창회장 순회배를 받았다. 개인전에서 메달리스트 閔聖植(자원공학71-75), 우승 申敦澈(산업미술83-89), 2위 金永郁(전기공학69-73), 3위 朴成敏(조선해양88-94), 장타상 鄭世溶(임상공학87-91), 근접상 白承培(섬유공학75-79) 동문이 각각 수상했다. 대회를 마친 후 장소를 그랜드하얏트호텔로 옮겨 총회를 겸한 송년모임을 가졌다. 회원 가족을 포함해 60명이 모인 총회는 鄭武雄(상학60-64) 부회장의 사회로 개회선언에 이어 고가제창, 회장인사, 재정보고, 임원 개선 순으로 진행했다. 裴相環(경제56-61)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도네시아지부가 적은 금액이지만 본국 총동창회 장학빌딩 건립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미화 1만1천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6년부터 제4대 회장으로 서 12년간 봉사해온 裴相環회장은 이날 임원 개선에서 회장직을 끝까지 고사해 제5대 회장으로 金錫來(도목공학65-69) 동문을 추대했다. 이어 수석부회장에 金永郁동문을 선출했으며 고문에 전임 裴相環회장, 감사에 鄭武雄부회장을 선임했다.

SGS동창회

李承漢회장 추대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회장 全烘奎)는 지난 12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삼성테크코 李承漢(11기) 사장(사진)을 추대했다. 신임李회장은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보좌역 부사장, 삼성물산 유통부문 대표 등을 역임했다. 송년회를 겸한 이날 모임에 吳元錫전임 회장, 모교 환경대학원 金基浩원장·林岡源교수, 환경대학원 동창회 崔秉植회장을 비롯해 80여 동문이 참석해 클래식그룹 'Happy Day'의 공연과 李鍾燾 前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대표의 특별강연을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동창회는 올해 세미나(3·6·9월), 부부동반 체육대회(5월), 골프대회(10월), 송년회(12월) 등의 사업에 2천2백여 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해 南正明(1기) 회장을 재선임했다. 南회장은 해군 참모차장(중장), 현대미포조선 고문을 역임하고 星友會 감사로 활동하며 지난 4년간 동창회를 이끌어 왔다.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애쓴 최익현(2기)·서병규(2기) 동문을 축하하고 각 기수별로 서해안 기를 제거 봉사활동 계획 등을 세우는 등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대학원 보철학동문회

金秉燦회장 뽑아



대학원 치과보철학동문회(회장 金誠一)는 지난 12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벨라지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金秉燦(치의학69-75·대학원 82졸) 동문(사진)을 선출했다. 개원의로 활동 중인 金秉燦회장은 취임사에서 "보철 전문의의 입지가 좁아지는 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 동문들이 자주 모이는 것"이라며 "자주 모여서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우리의 입지를 넓혀나가자"고 말했다. 보철학동문회는 지난 77년 창립돼 현재 2백50여 명의 동문이 매년 흠뻑데이, 아우회, 골프, 등산모임으로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올해는 학술대회를 개최해 정보교류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동문회 창립 30주년

을 맞이해 그동안 활동과 회원명단을 담은 30年史를 발간해 동문들에게 배포했다.

훈올회

孫文子회장 선임



미대 출신 여성 동문 모임인 훈올회(회장 俞英濟)는 지난 12월 6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코스모스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孫文子(응용미술62-66) 동문(사진)을 신임 회장에 선임했다. 신임 孫회장은 신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내잔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훈올회 총무를 맡아 회원 친목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모교 디자인학부 權寧傑(응용미술69-76) 교수가 '서울시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GLP동창회

최고경영인상 시상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辛東烈)는 지난 12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1백70백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및 제3회 최고경영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고경영인상 수상자로 사조산업 朱鎭軒(정치70-74·15기) 회장을 선정해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南〉

보대원동창회

9회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姜寅求)는 지난 12월 11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정기총회 및 제9회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許璿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보건대학원 李承旭원장·朴亨鍾

전임 원장 등 1백여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姜寅求회장이 연임돼 2년간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기로 했으며, 결산보고 결과 지난해 봄맞이 축제, 회의 등의 명목으로 2천9백여 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을 한 해 모교와 동창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曹定鉉(수의58-64·보대원66졸)동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柳在根(보

대원70졸)회장, 한국청소년연구소 朴明潤(보대원74-76)이사장을 선정해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했다.

기독교동문회

金在鎬 동문 수상

기독교동문회(회장 鄭相鶴)는 지난 11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鄭根謨(물리55-59)前명지대 총장, 장신대 金重恩(영문64-71)총장, 金尙哲(법학66-70)변호사, 모교 동양학과 金炳宗(회화74-81)교수 등 5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기독교동문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기독교동문인상은 기독교동문회 23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이스라엘법인 한국이스라엘친선협회장, 세계기독교신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金在鎬(행정51-55)동문이 수상했다.

이어 진행된 임원 개선에서 신임 회장으로 포스코교육재단 李大公(법학60-64)이사장을 선출했다. 신임李회장은 포항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기아대책 경북지역본부 포항지역회 이사장을 맡고 있

으며 포항 제일교회에서 장로로 활동 중이다.

의과대학동창회

丁長鎭 동문 張起呂 상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는 지난 12월 17일 서울 장충동 소피텔 엠베서더호텔에서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7 함춘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함춘의학상과 張起呂의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함춘의학상 연구업적 부문에 성균관대 金度寬(의학78-84)교수, 모교 생리학교실 金相政(의학84-90)교수, 연구계획 부문에 성균관대 金鍾源(의학79-85)교수가 수상했다.



또 왕성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 동문에게 수여하는 張起呂의도상은 丁長鎭(의학50-54)에벤에셀병원장(사진)이 받았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모교 내과학교실 方英柱(의학73-70)교수가 ‘표적치료제’에 대해, 정신과학교실 權俊壽(의학78-84)교수가 ‘뇌 과학의 새 지평’에 대해 강연을 했다.

사범대학동창회

사대인상·공로패 전달

사범대학동창회(회장 林香淳)는 지난 12월 4일 서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송년회를 열고 2007년을 빛낸 8명의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사대인상을 수여했다.

이날 유니콘코리아 李平燮(경성사범46졸)회장, 세계평화여성연합 朴炳善(사회교육50졸)대사, 중부대 崔熙善(교육행정61-65)총장, 천재교육 崔容準(수학교육61-65)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李元熙(국어교육71-80)회

장, 서울교대 宋光鏞(교육72-76)총장, 재정경제부 林英鹿(국어교육73-77)제2차관, 한국교직원공제회 李鍾瑞(사회교육73-77)이사장이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

이어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崔泰祥(역사교육53-57)회관건립추진위원장, 李相周(교육행정56-60)전임 회장, 徐順鍾(사회교육58-62)전임 감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모임에는 동창회 李應百 고문·閔丙峻 전임 회장, 모교 사범대학 曹永達학장·文龍鱗교수, 姜鎬鳳동문 등 1백여 회원이 참석했다.

iIP동창회

金明道 회장 재선임

IT벤처산업과정동창회(회장 金明道)는 지난 12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하고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시상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金明道회장을 재선임했으며 수석부회장에 원봉유니크생활건강 黃智玄(3기)대표를 선임했다.

이어 진행된 제2회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식에서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된 동아엘텍 朴宰圭(1기)대표, 메인텍 金鍾演(2기)대표, 엘씨텍 李明浩(3기)대표, 옴니시스템 姜在碩(4기)대표, 넥스트집 金敬洙(4기)대표와 여성으로 동문회를 빛낸 그랜드코리아레저 洪恩美(3기)팀장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AMPFRI동창회

최고경영자 대상 수여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尹煥植)는 지난 12월 11일 서울 신영동 한식당 자하문에서 송년회 및 제5회 최고경영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 모교 보건대학원 李承旭원장·金皓교수, 한국음식업중앙회 高仁植회장을 비롯해 2백여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외식산업부문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동창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최고경영자대상은 인평 朴春善(15기)대표가 수상했다. 차대표는 이날 동창회 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했다. 〈南〉



축산학과동창회

63명에 감사패 전달

축산학과동창회(회장 李範權)는 지난 12월 4일 서울 역삼동 상록회관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는 지난 5월에 열린 축산학과 70주년 기념 행사에 도움을 준 63명의 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국담축산학교육연구재단

(이사장 李茂夏)에서 재학생 10명에게 8백7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연구재단은 모교 명예교수를 지낸 故 李升圭(수원고 농30-33)동문이 사재를 출연해 1992년 모교 동물자원과학과 내에 설립했으며, 현재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상식 후 정P&C 연구소 鄭頌哲(축산67-71)소장이 연사로 나와 ‘2008년 축산업 과제와 전망’에 대해 강연했다.



ALP동창회

송년회서 덕담 나뉘

법대 최고지도자과정동창회(회장 金亮沃)는 지난 12월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黃義萬전임 회장, 모교 법대 胡文赫학장, 成樂寅·金建植교수를 비롯해 1기부터 7기까지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

석해 성황을 이뤘다. 차기 학장으로 내정된 金建植교수는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올해 입학할 8·9기생들도 최고의 리더들을 선발해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한 명 한 명 일어나 자기 소개와 덕담을 나눴으며, 2부 여흥시간에는 개그맨 김종국 씨가 사회를 맡아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상대 63학번 동기회

부부동반 송년회

상대 63학번 동기회(회장 吳秀吉)는 지난 12월 12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4층 토파즈룸에서 동문부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2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기회는 매년 6월 정기총회, 12월 송년회, 정기 등산·골프모임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홈페이지(www.snu63.net)를 통한 교류도 활발하다. 서양무역 吳秀吉(상학63-67)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宋 旻(경제 63-67)·韓國鍾(상학63-67)·許重松(경영63-67)·禹英命(상학63-70)·李世根(상학63-

70)동문이 부회장, 李正達(상학63-67)동문이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리대 64학번 동기회

朱剛秀동문 초청 모임

문리대 64학번 모임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盛)는 지난 12월 17일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STX 朱剛秀(지질64-68)상임고문의 초청으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郭明圭(사회64-68)·具沺列(영문64-68)·權武穗(정치64-68)·權武一(철학64-68)·金英吉(전문기상64-69)·金永哲(심리64-68)·金鍾澈(국문64-68)·金泰典(영문64-68)·卞相根(정치64-69)·宋鍾奐(외교64-68)·辛東午(정치64-68)·辛

鉉雄(지리64-68)·安光允(영문64-64)·柳熙根(사회64-68)·李孟馥(종교64-69)·李啓熙(정치64-68)·李宇鎔(정치64-68)·李源泰(지질64-68)·李 徹(사회64-71)·鄭明洙(미학64-71)·鄭昭盛(불문64-69)·鄭鎮一(사회64-68)·趙聖鎬(전문기상64-68)·崔玟根(철학64-68)동문 등이 참석했다.

문리대 65학번 동기회

60여 동문 한 자리에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송클럽(회장 宋常熙)은 지난 12월 14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처음 참석한 金泳植(외교65-69)·朴準九(영문65-69)·吳

効鎭(국문65-71)동문을 비롯해 60여 회원이 클래식 공연과 학창시절 추억을 나누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宋常熙회장은 “동송클럽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되는 모임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오늘 특별히 부산, 대구, 당진에서 참석해 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을 위해 메리어트호텔 夫貞愛(사학65-70)감사가 와인전량을 제공했다. 동송클럽은 3백50여 회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50여 명의 적극적인 동문들이 분기별 포럼, 등산, 테마여행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홈페이지(www.dongsoong65.net) 활동도 활발하다. 〈南〉

광주·전남지부동창회

여성동창회 활성화 논의

광주·전남지부동창회(회장 宋彥鍾)는 지난 12월 21일 전남 담양리조트 송강홀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宋彥鍾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모임에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며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결집이 중요하니 재미있고 보람된 동창회가 되도록 새해엔 더욱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여성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여성동창회를 활성화시키고, 직장별·단과대학별 회장단 모임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등산 및 골프모임을 분기별로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산지부동창회

월례회 참석 독려키로

마산지부동창회(회장 金永德)는 지난 12월 12일 마산시내 뷔페파크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을 가졌다. 金永德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위축되다보니 마산 지역도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아 아쉽다”며 “매달 1일에 열리는 월례회에 주로 50~60대 동문들이 참석하고 있어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동창회는 마산지역 동문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있으니 동창회보를 받아보는 마산지역 동문들께서 주저말고 동창회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월례회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고 각 단과대 대표를 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表〉

화제의 동문

프로레슬링협회 만든 尹宗相동문

八旬에 어머니 충혼전적비 세워

50년대 국내 레슬링계를 풍미했던 尹宗相(체육교육52-56)동문이 八旬의 나이에 한국전쟁 중 북과 첩보활동을 하다 목숨을 잃은 모친의 충혼전적비를 세운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尹동문이 지난해 4월 세운 ‘오마니 朴貞淑열사의 충혼전적비’는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서릉리 토곡산 줄기 1천여 평의 대지 위에 자리잡고 있다.

尹동문의 모친인 朴貞淑열사는 1947년 7월부터 당시 서울 명동에 있던 대북첩보기관 KLO 8240 부대에서 40대 초반의 아녀자 몸으로 북파특수공작원으로 활약하다 6·25전쟁 중 북한 정치보위부에 체포돼 순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전쟁이후 50년이 지나도록 알려지지 않다가尹동문의 끈질긴 수소문 끝에 밝혀졌다. 2005년 KLO 8240 부대 전우회의 증인으로 고인의 공적을 확인한 뒤 그 해 11월 대전 국립묘지 현충원에서 위패 봉안식을 가졌다.

尹동문은 “조국을 위해 활동하신 어머니의 고혼이 아직도 하늘에 떠돌고 있을 것이라 생각에 전적비를 만들었다”며 “이렇게라도 어머니께 불효를 빌고 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 사랑과孝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尹동문은 대학 재학시절 32~34회 전국체전 레슬링 밴텀급, 페더급을 석권하고 52년 헬싱키 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로 출전했을 정도로 뛰어난 레슬러였다. 졸업 후에는 아마추어레슬링협회



경남 양산 서릉리의 朴貞淑열사 충혼전적비

사범·경기위원장, 부산 종합체육관장을 역임하며 많은 훌륭한 선수를 배출했다. 우리나라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梁正模선수도 부산 종합체육관 출신이며 60년대 프로레슬링 스타였던 장영철, 전규덕 선수도尹동문이 키운 제자였다.

50년대 후반 미국, 일본의 프로레슬링 인기에 고무돼 국내에 프로레슬링협회를 만들기도 했

다.尹동문은 “일본에서 권투선수로 활동하던 김정수 씨와 의기투합 후 역도산 씨로부터 자문을 받아 프로레슬링협회를 발족했다”며 “당시 프로레슬링은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였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尹동문은 지난 2000년 대한레슬링원로인회에서 공로증을 받았으며 지난 2003년에는 부산레슬링협회 고문으로 추대됐다.

“고향인 황해도 사리원상업학교에서 심우룡 사범에게 레슬링을 배워 월남 후 휘문고에서 레슬

링부를 조직해 본격적으로 레슬링을 하기 시작했죠. 모교에 레슬링부를 창설해 58년에는 강사로 활동하며 崔鵬鍾동문을 제3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시키기도 했지요. 젊은 시절에는 레슬링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芴多(모친 세례명)전원주택 회장으로 활동하는尹동문은 요즘 충혼전적비가 세워진 서릉리 일대 10만평 규모의 부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부산지부동창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년 동문들을 별장으로 초대해 지부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으로 부인 丁暢鎭(약학56졸)동문과 세 아들이 있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력부

부산지부 宋圭政회장
(원스틸 회장)

부산지부동창회는 지난 12월 3일 신임 회장에 원스틸 宋圭政(사학63-67)회장을 선출했다. 河基成 전임 회장은 ‘마음의 고향 만들기’와 ‘지역사회 봉사’라는 비전으로 동창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동문 참여를 이끌어 냈다. 바통을 이어받은 신임 宋회장은 “앞서 동창회를 훌륭히 이끄신 선배님들의 업적과 조직문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소명을 느끼고 있다”며 “열린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열린 동창회로 자긍심 심어줄 것”

— 기업 운영에 바쁘실텐데.

“부산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해왔고, 제18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면서 상공계의 커다란 조직을 통해 많은 사람을 아우르며 각종 조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창회 발전에 더 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동창회는 이해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활동과 다릅니다. 그래서 따뜻한 정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만 있다면 더욱 응집력 있는 모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지부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동호회 모임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관악산우회와 기우회, 골프회를 비롯해 담론모임인 마로니에클럽 등이 동창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문들을 끈끈하게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모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부산지부가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 지방이라 애로점은 없는지.

“林光洙회장께서 건립 중인 장학빌딩이 30만 동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모교인 서울대를 졸업한 선후배 동문들입니다. 좋은 것, 힘든 것 모두 함께 나누고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부를 독려하고 중요한 행사 때마다 총동창회 집행부가 적극 동참해 준다면 동문들이 더 큰 결집력으로 모교와 국가에 헌신하리라 봅니다.”

— 동창회 운영 계획은.

“기업 혹은 공직으로 부산지역에 전보되는 동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면서 동창회에 참여하지 않는 숨은 동문들을 찾아내 자긍심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부를 발간하고 수시로 소식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동문들에게 동창회가 왜 필요한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skinship을 통해 자주 만나고 부딪쳐 보겠습니다.”

宋회장은 지난 30년간 포스코가 지정한 열연·냉연 Steel Service Center이자 철강 가공·유통 및 강건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해왔다. 〈表〉

세계적 CEO 배출수로 32위

프랑스 명문대 ‘에콜 데 민’ 평가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가 프랑스 명문 파리 ‘에콜 데 민(Ecole des mines)’이 세계 주요 기업 CEO 배출 인원을 바탕으로 실시한 세계 대학평가에서 세계 32위에 올랐다.

에콜 데 민 대학평가에서 모교 출신의 세계 주요 기업 CEO는 포스코 李龜澤(금속공학64-69)회장, 鄭遇澤(금속공학64-68)前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 LG전자 南 鏞(경제69-76)대표 등 3명으로 32위에 올랐다.

이러한 높은 평가는 모교가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 일류대학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에콜 데 민은 지난 2006년 포천(Fortune)이 선정한 ‘세계 5백대 기업’ CEO의 출신대학(학부·석사·박사)을 조사했다. 한 명의 CEO가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중 둘 이상의 학위를 각각 다른 대학에서 받았을 경우, 각 대학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5백대 기업 중 확인이 가능한 87% 기업 CEO의 출신대학을 조사해 3백38개 대학 순위를

순위	대 학
1	하버드대
2	도쿄대
3	스탠퍼드대
4	에콜 폴리텍
5	프랑스 고등상업학교
6	펜실베이니아대
7	MIT
8	파리정치대(시앙스포)
9	프랑스국립행정학교(ENA)
10	에콜 데 민
32	서울대

선정했다. 5백대 기업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12개의 국내기업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하버드대와 도쿄대가 각각 1위, 2위에 올랐으며, 국내 대학 중에서는 모교 32위에 이어 성균관대 81위, 한양대와 연세대 89위, 고려대 2백14위로 나타났다.

다. 〈표 참조〉

다른 세계 대학평가기관의 평가와 비교하면 상하이교통대 평가는 노벨상 수상 경력 등 세계적 연구수월성에 초점이 맞춰 있고, 영국 더 타임스의 평가는(2007년 모교 51위) 연구와 교육의 종합적인 평가에 중심을 두고 있다. 반면 파리 에콜 데 민의 평가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 인재의 배출능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모교 南益鉉기획부실장은 “에콜 데 민의 평가는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모교가 세계 32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최고경영자를 많이 배출한 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업에 다수 포함된 것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며, 모교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콜 데 민 자료 중 鄭遇澤 前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李相大대표는 각각 모교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나, ‘성균관대-서울대-마노아주립대’로 불명확하게 제시되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삼성생명보험 李水彰(수의학67-71)사와 KT 南重秀(경영75-79)사는 각각 모교 수의학과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나 李水彰사는 출신대학 확인이 어렵고, 南重秀사는 미국 와이오밍주립대를 졸업한 것으로 각각 제시됐다.

에콜 데 민의 조사결과가 수정돼 5명으로 증가하면 모교의 대학평가 순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모교 홍보부 제공〉

SCI급 논문수·기술이전 1위

교육부 ‘대학 연구활동’ 분석결과

모교가 지난해 대학별 SCI급 논문 발표수와 교원들의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발표한 전국 2백30개 4년제 대학의 ‘대

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결과’에서 모교는 SCI급 논문 3천1백17편을 발표하고, 40건의 기술이전으로 13억6천2백만원의 성과를 거둬 1위에 올랐다.

한편 SCI급 논문 발표수에서 2위 연세대 1천2백92편, 3위 한

국과학기술원 9백30편, 4위 경북대 8백55편, 5위 고려대 8백49편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이전료 성과에서 2위 한국과학기술원 30건(8억5천6백만원), 3위 연세대 19건(6억3천3백만원), 4위 포항공대 24건(5억6천2백만원), 5위 한양대 23건(4억2천4백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 SCI(과학논문 인용색인)급 : SCI, SCI EXPANDED, 사회과학분야의 SSCI, 인문예술분야의 A&HCI를 포함한 개념.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

또한 교내에 교육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2008년 1학기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학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평가항목 중 제2외국어의 무부여를 비롯해 영어강의 확대, 외국인학생 비율·지원현황, 교환학생·공동학위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국제화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학과에 예산과 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모교는 이번 제도에 관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수·학과간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교수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술은 매우 어려우며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 보고된 최저 체중은 1.3kg이었다.

이번 수술은 심장 대동맥을 넓혀주고 심실 벽에 생긴 구멍을 메워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또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뇌혈관에 인공심폐기관을 연결해 국소적으로 피를 공급하면서 수술하는 고난도의 기법을 사용했다.

현재 아기의 체중이 1.36kg으

선배님,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㉔

華農 趙伯顯 博士像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명과학대학 본관 1층 로비에 있는 故 趙伯顯(수원농전20졸) 명예교수 흉상. 농생대에서 개교 9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1996년 10월 건립했다. 趙伯顯명예교수는 전통식품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된장과 간장의 제조법을 과학화해 한국식품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2006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농생대 초대 학장,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다.



미술관

‘파리의 풍자꾼’ 전시



철도열차 안에서4.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프랑스의 화가이자 판화가인 오노레 도미에의 탄생 2백주년을 맞아 ‘파리의 풍자꾼’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독재, 파리 민중의 역사를 선명하고 당당하게 그려 낸 오노레 도미에의 유화 작품을 비롯해 판화 및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한다. 〈문의 : 880-9506〉

수의과대학

세계 첫 마약탐지견 복제

수의과대학(학장 朴龍浩)은 지난 12월 14일 세계 최초로 마약탐지견 복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의대 동물복제팀은 작년 6월 관세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마약탐지견 복제에 착수해 지난달 7마리를 복제하는데 성공했다. 이중 2마리는 관세청에서 기본적인 탐지견 훈련을 시작했다.

이 팀은 마약탐지견으로 주로 활용하는 캐나다산 개 ‘래브라도 레트리버’에서 체세포를 채취한 뒤, 복제배아를 대리모 개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으로 복제에 성공했다. 〈榮〉

모교 병원

국내 최소 미숙아 심장수술

모교 병원(원장 成相哲)이 국내 최저 체중인 1.25kg에 불과한 미숙아의 심장수술에 성공했다.

소아흉부외과 金雄漢(의학81-87)교수팀은 지난 12월 5일 임

신 29주만에 태어나 대동맥기형이 동반된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을 앓고 있던 아기의 수술에 성공했다.

체중 1.5kg 이하인 아기의 심



언어교육원 137-2 강의동 신축 조감도

언어교육원 멀티강의동 6월 착공

“신축비용 모금에 동참하길”

모교는 2008년 6월부터 1년간 지하 1층, 지상 6층의 언어교육원 강의동 신축에 들어간다.

대략 50억원 정도(교육부 공식 인문계열 강의동 신축비 평당 3백28만원 참조)의 예산으로 강의동을 신축(137-2동)해 부족한 강의실, 세미나실을 신설, 언어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모교의 국제화 교육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모교 언어교육원(원장 洪基瑄)은 1963년 1월 모교 동송동에서 어학연구소로 발족해 2001년 언어교육원으로 승격, 45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어교육, 외국어교육, 국가공인 언어능력측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세계적인 학술지 ‘어학연구’의 발행기관이기도 하다.

현재 1백50여 명의 강의, 연구 전임인력이 매년 80여 개국 출신 2천여 명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1만2천여 명의 모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비롯한 7개 외국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영어능력 인증시험인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를 비롯해 9개 언어에 대해 4개의 능력측정 시험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최근 모교가 실시하는 부속 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교육측정기관이다.

그러나 시설 면에 있어서는 현재 총 52개의 강의실을 사용하고 있어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가 2백여 개의 강의실을 할애하는 것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열악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국어교육, 외국어교육의 수강생 및 TEPS 사업 등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강생 증원이나 새로운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에 모교는 한국어 및 외국어 교육에 대한 증가한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기능을 적극 수용하

기 위해 최신 교육설비를 갖춘 강의동을 신축하고 기타 지원시설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언어교육원은 4층 건물의 본관(137동)과 5층 건물의 신관(137-1동)으로 52개 강의실과 6개 Lab실로 이뤄져 있다. 모교가 2008년 6월 착공해 2009년 5월 준공하는 새로운 강의동(연면적 4천~6천㎡)이 완공되면 15인용 강의실이 50개 정도 증설될 예정이다.

모교는 강의동 신축을 통해 연간 3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과 1만여 명의 모교 학생들을 추가로 교육할 수 있게 돼 모교와 대한민국의 국제화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법인 서울대 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이하 발전기금)은 “멀티강의동 신축에 드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현재의 기금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기부를 통한 자원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들이 언어교육원 신축을 위한 기금 모금에 적극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모교는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의 도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발전기금이 추진하는 ‘서울대학교 비전 2025 기금모금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발전기금은 교육환경 개선, 우수 교수진 확보 등 모교가 국제화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동문들이 모교의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그에 대한 소식들을 동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또 동문들이 ‘비전 2025 기금모금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기부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모교 발전기금 제공)



경영대학

‘10년내 세계 10위권 진입’ 선포

경영대학(학장 郭守根)은 지난 12월 1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동문과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라는 주제로 비전 선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金範洙(경영88-92)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는 모교 李長茂총장을 대신한 金信福부총장의 환영사, 상과대학동창회 洪龍燦회장·경영대학원동창회 金英

大회장·AMP동창회 金光石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이견산업 朴英珠(경제59-63)회장과 KT 南重秀(경영75-79)사장에게 ‘경영인 대상’을 수여했다.

郭守根학장은 “세계 대학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며 “10년 내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수행하는 데 발전



좌로부터 金宰永·尹寧彬교수, 鄭哲圭이사장, 姜泰普학장, 尹齊鏞·朴紋緒교수

공과대학

교수·공로·신양학술상 시상

공과대학(학장 姜泰晋)은 지난 12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훌륭한 공대 교수상’, ‘발견공로상’, ‘신양공학학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제16회 ‘훌륭한 공대 교수상’ 교육상 부문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姜周明(자원공학70-74)교수, 연구상 부문에 기계항공공학부 金

承祚(항공공학69-73)교수를 선정했다.

교육상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교육에 헌신한 공대 교수에게, 연구상은 연구논문 및 저술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술개발 또는 특허 등을 통해 산업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교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공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기금 5백억원이 필요하기에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Vision 10-10-10’ 실천 과제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획기적 개선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도입 ▲리더십과 사회적 임 교육 강화 ▲학문후속 세대 양성 ▲세계적 수준의 우수 교수 확보 및 교수 연구역량 강화 ▲경영학 연구의 글로벌 허브(Global Hub) ▲한국 기업사례 개발 및 세계적 전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행정의 혁신 ▲재정기반의 획기적 확충을 제시했다.

한편 기금행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영림임업 黃福顯(AMP 45기)대표와 우리에셋투자 崔鎮植(AMP 53기)대표가 각각 1억원을 약정했으며, 큐릭스 元載淵(경영82-86)대표가 3천만원을 출연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1946년 상과대학 설립 이래 처음으로 경영대와 옛 상과대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MBA졸업생, 경영대의 각 단과과정 수료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대상으로 한 제19회 ‘발견공로상’은 류로베리타 朴炳俊(섬유공학52입)특별자문위원, 전기컴퓨터공학부 鄭德均(전자공학77-81)교수가 수상했다.

제3회 ‘신양공학학술상’은 전기컴퓨터공학부 崔鎮榮(제어계측공학78-82)·河舜會(전자공학81-85)교수, 화학생물공학부 尹齊鏞(공업화학80-84)교수, 기계항공공학부 尹寧彬(항공공학81-85)교수, 건설환경공학부 金宰永(토목공학82-86)교수, 건축학과 朴紋緒(건축학85-89)교수에게 수여했으며 이들에게는 부상으로 각 1천만원씩 신양공학 연구기금을 전달했다.

이 상은 기금을 출연한 신양문화재단 鄭哲圭(화학공학48-52 관악회 이사)이사장의 호를 따 ‘신양’공학학술상으로 명명했으며 모교 공대 교수 가운데 부교수 및 정교수로 승진하는 젊은 교수 중 업적이 가장 뛰어난 교수를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약학대학

도쿠시마대와 학술교류

약학대학(학장 徐永鉅)은 지난 11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약대학장실에서 일본 도쿠시마대 약학부 요시히사 다카시(Yoshihisa Takaishi)학부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약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도쿠시

마대 약학부와 공동연구·교수 및 학생교류·강의·학술정보·자료교환 등 상호교류 협력 방안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력 방안에서는 매년 각 대학의 교수 2명이 상호 대학을 방문해 자신의 연구상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는 ‘교수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교 徐永鉅학장은 “이번 학술교류 협정 체결로 양 대학이 공동연구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이뤄 약학분야에서 글

로벌 체제 구축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뜻깊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 약대와 도쿠시마대 약학부는 지난 1990년 7월 최초로 상호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후 3차례 협정을 갱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도쿠시마대 대표단은 방한 일정 중 모교 鞠 櫟연구처장을 방문해 약대뿐만 아니라 양 대학간 포괄적인 학술교류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榮)

하이닉스, 산학협동 142억 지원 현대중공업, 사회대에 13억 쾌척

모교는 지난 11월 28일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하이닉스반도체(대표 金鍾甲)와 산학협동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부터 6년간 1백42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르면 모교 전기공학부를 비롯해 화학생물공학부, 재료공학부, 물리·천문학부 등 총 4개 학부가 하이닉스로부터 ▲학과 및 석좌교수 지원금(45억여 원) ▲반도체공동연구소 유류장비(19억원 상당) 기증 ▲장학금(78억여 원)을 후원받게 됐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 매진하도록 모교 공대 교수 가운데 2명을 ‘하이닉스 석좌교수’로 선정하기로 했다.

하이닉스반도체 金鍾甲대표는 “훌륭한 학생들이 기업의 차세대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로 클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교와 하이닉스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과 나노분야 기술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11일 사회과학대학(학장 林玄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발전기금 13억원을 출연했다.

이번에 출연된 발전기금은 사회대 냉·난방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에너지절감 사업) 사업에 쓰이게 된다.

이 사업이 2008년에 완성되면 사회대 건물 전체가 현대적인 냉·난방 시설을 갖추게 돼 보다 쾌적한 교육·연구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발전기금의 출연은 평소 교육환경 개선을 생각한 鄭夢準(경제70-75)국회의원의 관심으로 이뤄졌다.



좌로부터 국어교육과 閔賢植학과장, 李長茂총장, 崔賢燮회장, 경찰대 朴景賢교수, 경인교대 朴寅基교수

국어교육과

발전기금 1억 출연

국어교육과동창회(회장 崔賢燮)는 지난 12월 7일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여 원을 출연했다.(사진)

崔賢燮(국어교육59-65 경인교대 명예교수)회장을 비롯해 장학금 조성위원장을 맡았던 朴景賢(국어교육64-68 경찰대 교수)동문 등은 국어교육과 60주년을 기념하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로 사용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모교에 전달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연구·학술·교육상 수여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朴憲雨)은 지난 11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제15회 상록연구대상, 제7회 학술상, 제6회 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상록연구대상 수상자에 柳寬熙(농공학63-67)교수, 학술상 수상자에 徐鎭浩(화학공학72-76)교수, 교육상 수상자에 李景俊(임학63-71)교수가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모교 李長茂총장을 비롯해 농생대 朴憲雨학장, 교수, 학생, 동문 가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상록연구대상은 농생대 교육연구재단이 1991년 농생대 韓仁圭(축산학 52-56)동창회장이 출연한 1억원을 재원으로 해 농생명과학분야 연구·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수에게 시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생대가 시상하는 학술상과 교육상은 연구논문 및 저술업적이 탁월한 교수와 후진양성과 교육활동에 전념한 교수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번 상록연구대상을 수상한 柳寬熙교수는 1979년 모교에 부임한 후 트랙터나 응용계측장비의 농기계를 제작하는 등 농업기계공학분야와 농업자동화설비분야에서 논문 1백27편을 썼으며 관련특허 4개를 등록한 바 있다. (榮)

재학생의 소리



‘함께 하는 것’의 소중함 실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田昌烈이라고 합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원고를 졸업해 2004년 모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동안 학내에서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장, 석면대책위원회,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 서울대학교 봉사단장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위해, 그리고 학교를 위해 살라고 선택해주신 만큼 그 선택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학교의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 만큼 기본적인 학업을 완전히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예전에 비해 많은 시간을 쏟을 수는 없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성실히 해야 할 일들에 임하겠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니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대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을 굳이 고른다면, 저는 ‘함께 하는 것의 소중함’을 고를 것입니다. 제 삶 전체가 함께 하는 삶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행복을 추구하고, ‘혼자를 위해’ 돈을 쓰는



田 昌 烈
(식품·동물생명공학부04입)
총학생회장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돈을 쓰고 싶습니다. 직업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내일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따라 우리 학교가 선도해야 할 일 역시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후배들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부족한 노력을 보듬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선배님들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오셨던 것처럼 후배들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서울대학교가 21세기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는 말이 바로 이 시점에도 유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저 자신부터 선배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콩트 릴레이

그리운 저고리

扈 源 淑

(국어교육72-76)수필가



염전이였다.

“애 저것 좀 봐 주고 나가렴.”

앞마당으로 내려서려는데 상사화가 올라와 흐드러져 있다. 유난히 무덤거나 불시에 장대비가 퍼부어 대거나 하는 날들이었는데, 어느 틈에 꽃대가 올라와 연분홍 꽃을 피웠다. 한여름으로는 안 어울리는 빛깔이다. 화려하면서도 어딘지 청승맞은 분홍색. 키 큰 백일홍과 봉숭아 사이로 올라왔지만 단연 돋보이고 부드러운 향기가 스치듯 느껴진다.

연속은 허둥지둥 나가는 민주를 잠시 불러 세워 꽃을 보게 한다.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굳이 어디 가느냐고 캐묻지 않는 게 모녀의 습관이다.

올 여름엔 소재인조견 블라우스 차림이다. 혈령한 검은 면바지. 다른 옷으로 바뀌 입으려다가도 시원하고 몸에 달라붙지 않는

“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제대로 남길 수 없다. 헤어질 때까지 입고 소진해 버렸으니.

콩밭을 매던 여자의 땀에 젖은 베적삼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리 없다.

”

인조견의 감촉 때문에 자꾸만 입게 된다. 박물관에서의 호출이다.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사진 촬영 권으로 모여 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뿐 전화로는 연락하지 않는다. 그것도 예의라면 예의다. 복중 휴가철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을 불러내는 것이니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민주는 차의 시동을 걸고 오전부터 벌써 뜨거워진 차 안에 에어컨 바람을 넣는다. 덜 마른 머리를 말리는 데는 자동차 에어컨 만한 게 없다. 나쁜 버릇인 줄 알면서 머리가 마르기 전에 밖으로 나오게 된다.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 시간과 정성이 항상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머리 카락까지 신경이 써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돈 생기는 일도 아니면서...’ 스스로에게 쫓겨거리지만 무엇이든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두들 휴가를 떠난 듯이 서울거리는 허적이다. 강변북로에서 용비교로 접어든다. 표지판을 볼 때마다 지명을 입으로 외우는 버릇. 용비교 두무개다리 한남동 남산 소월

길을 내려와 남대문과 시내를 관통해 신문에 있는 박물관까지 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박물관 전시실은 벌써 촬영 준비의 관을 벌이고 있다. 새로 온 사진작가는 아예 큰 책상 위로 올라가고 하얀 관대기를 깐 바닥에 저고리를 놓고 위에서 아래로 보고 찍고 있다. 사진작가로는 무척 까다로운 심선생 스튜디오에서 아끼는 제자라고 추천해 줬으니 믿어 봐야지. 심선생한테 줄 돈의 반도 안 되는 수고비로 약속을 해 놓았다.

30대 초반이나 될까 꼬랑머리를 한 거 말고는 별 특징이 없다. 빈틈하게 머리를 넘겨 묶은 것이 단정하기까지 하다. 민주는 순간 남자가 거울을 보며 고무줄로 머리를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 (서양화02-07) 동문

묶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혼자 웃음을 짓는다. 옷차림이 튀지도 않고 태도는 조용하다. 하기가 사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말수가 적다는 것. 19세기 말기부터 1970년까지의 6백점에 가까운 저고리는 이 박물관의 가장 수요가 많은 유물이었고 자료정리 명목으로 따낸 기금으로 연말 안에 해내야 된다는 것, 그러려면 이 염전에 촬영을 하지 않으면 전시와 도록 발간 날짜를 맞출 수 없으니 위원들을 소집할 수밖에. 어차피 자발적인 일이니 한 사람 없다고 해서 큰 일 날 일은 물론 아니다.

2층에 있는 수장고에서 한 상자씩 꺼내 전 시실로 내려왔다. 저고리도 20점 이상 쌓이니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워진다. 며칠씩 실측작업을 한 것은 다 민선생의 몫이었다. 품 길이 화장 수구 진동 깃과 동정의 너비, 고름의 길이와 너비를 실측하는 것에 여러 달 전부터 거의 매일 매달렸었다. 수장고 안

은 향은 향습기가 가동돼 늘 서늘하고 건조하다. 그래도 어딘가에서 멀리로부터 온 냄새가 있다. 먼 시간과 오래된 물건의 내력이 내뿜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긴다. 어디선가 맡은 듯한 냄새. 그러나 알 수 없다.

그 옷들의 주인들은 다 어디 있을까? 구한말에 세도를 부렸던 가문의 후예들이 내놓은 옷 중에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진솔옷도 많다. 박물관 전시가 끝날 때마다 그 신뢰감으로 아끼던 유물들을 기증해온 것이 모인 것이다. 친일파나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의 장롱에서 나온 것들도 많다. 비취와 옥과 호박이 한 바가지씩 나왔다는 그 부귀영화는 어디로 갔을까. 불과 1백년도 안 된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제대로 남길 수 없다. 헤어질 때까지 입고 소진해 버렸으니. 콩밭을 매던 여자의 땀에 젖은 베적삼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리 없다.

이제 박물관 유물의 주인은 침방에서 조용히 옷을 지으며 자신의 솜씨와 예술성을 풀어내었던 여인들이다. 그 옷을 입고 뽀내고 권위를 부렸던 사람이 아니라 마름질은 하고 솜을 두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던 침방의 여자들의 작품이다. 수장고 안에 들어오면 옷을 짓던 여자들의 한숨과 속삭임이 들리는 듯하다.

저고리 하나를 올릴 때마다 작은 탄성이 터진다. 저고리 속에 넣은 중성지를 꺼내고

숫비숫해 보이지만 소재도 다르고 모양도 문양도 같은 것이 없다. 공장에서 대량생산한 것이 아니기에.

“이건 궁바느질이에요.” 전문가의 눈으로만 알 수 있는 고수의 손바느질 저고리는 그 품격이 다르다.

사진기사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밑에서 한 점씩 올라오는 저고리를 찍는다. 번호를 붙이고 고름을 매고 끈지 않도록 살짝 끈을 꼬고 하는 작업이 말없이 이뤄진다.

민주는 사진기사와는 별도로 사진을 찍어 놓는다. 문양과 저고리의 맵시 부위별로 따로 디카에 담는다. 보도자료를 만들려면 사진이 만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지만 30점도 찍지 못했다.

마침 장선생이 뛰어들어오듯 들어온다. 비를 흠뻑 맞고 보파리를 들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밖에 비가 오는 줄 몰랐는데...

점심을 싸들고 온다. 스스로 마당발이라고 하는 기획을 맡은 장선생이다. 그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무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전시실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전시실 밖 통로에 간이 식탁을 차리고 서서 늦은 점심을 먹는다. 장선생의 음식 준비는 엽엽해서 늘 감탄을 하곤 한다.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동글동글하게 빛은 찰밥과 입에 쏙 들어가게 썬 오이지다. 서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면서도 든든하다. 무엇보다 그 간단함이 열증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정도라 좋다.

얼마 전 구십이 가까운 시어머니를 노인병원에 보낸 장선생은 마침 올라온 포도무늬 모본단 저고리를 보며 노래하듯이 말한다.

“우리 노친네 모본단 저고리에 금 단추 다시고 지내셨던 그 당당한 어디 가셨을까. 그 서슬퍼런 품위 어디 가셨을까. 외며느리는 용케도 알아보시고 옥을 해대시는데 네 년이 다 흘쳐갔다고 도둑년이라고 입에 담지 못할 소리 하시네. 여기 나와서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자네. 그 옥 소리 들려서.”

저녁 시간을 훌쩍 넘기지만 아직 1백점 가까이 밖에 찍지 못했다.

밖은 한 차례 비가 지나갔건만 거리에는 무더움이 그대로 배어 있다. 열중한 뒤의 뿌듯함과 허무함이 같이 몰려온다.

민주는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다.

“저녁 드셨어요?”

“오이지 무쳐 먹었다. 그게 제일 낫구나. 속이 다 가라앉는구나.”

연속은 민주에게 낮에 꾸곤 이야기를 한다.

“애 요즘 꿈을 잘 꾸지 않는데 서랍에 잔뜩 저고리가 있지 않겠니?”

“웬 저고리요?”

민주는 놀라서 묻는다. 연속은 짧이 하루 종일 박물관에서 저고리와 묻혀 지낸 걸 알기나 하듯 대낮에 꾸곤 이야기를 한다.

“해방 전 개성서 보던 갖저고리부터 너 넣었을 때 입었던 포플린 저고리에다가 조세트 저고리 모본단에다가 참 이상도 하지 그게 지금 어디 있겠니? 그런데 그 저고리들이 서랍 가득 있는 거야 저고리 사이사이 넣어 뒀던 통장을 찾아 찾아 잠이 깨었다. 너도 알잖니? 옛날엔 저고리 사이사이 돈도 넣어 놓고 집문서도 넣어 놓고... 그런데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구나.”

연속은 외아들이 죽은 후 장롱 서랍 속에 있었던 한복은 모두 누군가에게 쥐버리고 허물하게 서랍은 비운 지 오래다.

동 정

수 상

▲宋仁相(경성고상35졸 한국능률협회 명예회장)=지난 12월 24일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吳世卓(법학49-53 前충북예총 회장)=지난 12월 17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부터 제21회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분회 부회장)=지난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인 대상'(의료교육부문) 수상.
▲金濬浩(법학52-56 코리아나 국제투자자문 회장)=최근 전국 금융노조 창립 멤버로 구성된 8·19회 회장으로 기여한 공로로 전국금융노조로부터 공로패 수상. 또 도란 캐피탈 파트너스로부터 외자유치 등 경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수상.
▲李相萬(작곡53-6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지난 12월 26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

관에서 서울시 문화상(국악분야) 수상.
▲金鳳壬(성악55-59 서울오페라단 예술총감독)=지난 12월 6일 서울 행당동 한양대동문회관에서 한국음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한국음악상 특별상 수상.

▲孫京植(법학57-61 CJ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분회 부회장)=지난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경제발전부문) 수상.
▲李相禹(행정57-61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분회 부회장)=지난 11월 2일 북한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북한연구소가 수여하는 제20회 자유문화상 수상.

▲金鳳九(조소58-63 이화여대 명예교수·미대동창회장)=지난 12월 26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문화상(미술분야) 수상.
▲朴聖泰(의학58-64 예일의원장·성악가·수필가)=지난 12월 17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주)21세기뉴스가 수여하는 제6회 21세기 한국인상(문화예술공로부문) 수상.

▲金鳳九(조소58-63 이화여대 명예교수·미대동창회장)=지난 12월 26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문화상(미술분야) 수상.

▲朴聖泰(의학58-64 예일의원장·성악가·수필가)=지난 12월 17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주)21세기뉴스가 수여하는 제6회 21세기 한국인상(문화예술공로부문) 수상.

▲高興吉(정치62-66 국회의원)=지난 12월 8일 서울 해화동 동성중·고교 개교 1백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동성인상 수상.

▲吳明(전자공학64-66 건국대 총장·분회 부회장)=지난 11월 27일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엑스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골드메달 수상.

▲諸葛政雄(상학65-72 학교법인 대림학원 이사장)=지난 12월 22일 서울 시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한국시문학상 대상 수상.

▲金利煥(현대원68-70 이영미술관장·화성연구회 이사장)=지난 12월 7일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제4회 대한민국문화유산상(봉사·활용부문) 수상.

▲安祐成(건축85-89 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대표)=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양익재'라는 개인주택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주거부문) 본상 수상.

▲金빛내리(미생물88-92 모교생명과학부 교수)=지난 12월 7일 제7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이학분야) 수상. 또 오는 3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우수학자 선정

15명 중 安鎮興교수 등 14명이 동문

지난 12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인문사회 및 기초과학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2007년도 우수학자' 15명(인문사회 6명, 기초과학 9명)을 선정했다. 이 중 14명이 모교 출신이다.

과학자들에게는 최대 10년간 매년 2억원(이론 분야는 1억원), 인문·사회학자에게는 최대 5년간 매년 3천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수학 분야는 모교 수리과학부 姜錫眞(수학80-84)교수, 고등과학원 琴鍾海(수학76-80)·金範式(수학85-89)교수, 물리학 분야는 한국과학기술원 李用熙(물리73-77)·崔基雲(물리77-81)교수, 화학 분야는 모교 화학부 鄭永根(화학73-77)교수, 생물학 분야는 포스텍(포항공대) 安鎮興(식물학68-72)·徐判吉(수의학73-80)교수, 지구과학 분야는 충남대 柳東秀(천문학83졸)교수를 선정



李用熙교수



鄭永根교수



徐判吉교수



琴鍾海교수



崔基雲교수



柳東秀교수



姜錫眞교수



金範式교수

했다.

한편 인문학 분야의 모교 철학과 黃璟植(철학66-70)교수와 사회과학 분야의 모교 사회학과 林玄鎭(사회67-71)교수, 법학부 梁章洙(법학70-74)교수, 경제학부 李根(경제79-83)교수, 고려대 張世進(경제80-84)교수 등 5명은 지난해 10월에 이미 발표된 본보(11월 15일자 18면)에

소개된 바 있다.

우수학자는 '국가석학(Star Faculty)'이라는 이름으로 기초과학 분야만 2005년 11명, 2006년 10명을 선정했다. 올해부터 '국가석학' 명칭을 '우수학자'로 바꾸고 인문·사회 분야를 추가해 15명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전체 우수학자 36명 가운데 32명이 서울대인이다. <變>



安鎮興교수

월 6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여성과학자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수상.

▲孔炳宇(성악93-97 성악가·바리톤)=지난 12월 7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LG와 함께 하는 제3회 서울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영예의 우승 차지. 지난 2000년부터 프랑스 몽펠리에 오페라극장의 가수로 활동하며 '세비아의 이발사' '돈 조반니' '신데렐라' 등 오페라 작품에 출연.

▲都東煥(AMP 26기 대동협업 회장·민족문화영상협회장)=지난 12월 26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문화상(대중예술분야) 수상.

인사

▲安鍾允(법학51-55 前한양대 교수·한국국제관광개발연구원장)=지난 12월 8일 사단법인 한국정책포럼 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임.

▲裴 渡(법학53-57 효성그룹 고문)=최근 임기 4년의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 선임.

▲成耆鶴(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골드윈코리아 대표)=지난 12월 7일 서울사대부고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21대 회장에 취임.

▲徐維憲(의학67-73 모교 약리학 교실 교수)=지난 12월 3일 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임기 2

년의 위원에 위촉.
▲成相哲(의학67-73 모교 병원장)=지난 12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u-헬스산업 활성화포럼 창립총회에서 임

기 2년의 초대 의장에 선출. 또 11일 경남중·고교 재경동창회 조찬회 '덕형포럼' 창립모임에서 초대 회장에 추대.
▲林采均(행정69-73 前서울형사지법 판사·법무법인 자하연 대표변호사)=지난 12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임명.

▲郭贊浩(신대원69-71 한국통일문화연수원 이사장)=최근 고려대 기별교우회 고압회 회장에 재선임. 또 북한 이탈주민후원회 새터민 정착 성공수기 심사 및 평가위원에 위촉.

▲申澈永(기계공학70-78 국민고층처리위원회 사무처장 겸 상임위원)=지난 11월 29일 국민고층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盧俊亨(법학72-76 前정보통신부 장관·서울산업대 총장)=지난 11월 29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韓相律(농업교육72-76 前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차장)=지난 11월 30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2층 강당에서 제17대 국세청장에 취임.

▲金奎台(AFB 1기 이원물산 회장)=지난 12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제13대 회장에 취임.

행사

▲權純亨(응용미술49-55 모교 디자인학부 명예교수·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지난 12월 11~16일 강원도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강원도민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도예초대전 개최.

▲崔斗衡(행정51-55 성원개발 회장·서암복지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11월 28일 강원도 강릉시 강원대에서 제5회 서암장학금 수여식을 개최, 중·고교생 및 대학생 30명에게 3천만원 전달.

▲金鍾憲(경제55-59 서해안문화연구소 회장)=오는 2월 2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 서강타운에서 탁영 김일손 선생 순절 5백10주년 추모 기념 및 청암 김태곤 선생 서산시 우회 창립 63주년 기념 시조 서화전 개최.

▲金載姪(회화56-60 한국미협 회원·서양화가)=지난 12월 15~31일 대구 달성군 동계미술전시관에서 성화전 개최.

▲吳効鎮(국문65-71 前SBS제작본부장·前정원군수)=지난 12월 5~11일 서울 관훈동 갤러리 나우에서 사진전(사진과 시와 서예의 만남) 및 영상수필집 '절없는 남편, 바보 같은 아내' 출판기념회 개최. 또 20~31일 청주 문화관에서 전시 개최.

▲康一宇(섬유공학71-75 강&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아시아변리사회 한국 협회장)=지난 11월 17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아시아변리사회 이사회에 참석, 2010년 10월 제58차 이사회 의 제수도 개최 유치.
▲徐惠英(기약76-80 성결대 교

수·피아니스트)=지난 12월 19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세실 사미나데, 클라라 슈만, 로베르트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李忠範(법학78-82 법무법인 CS 대표변호사·정해복지 이사장)=지난 12월 1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해복지 후원 자선디너쇼 개최.

▲金玲美(기약81-85 前KBS교향악단 수석·한국예술종합학교강사·플루티스트)=지난 10월 26일 사라예보에서 동양인 관악주자로 처음으로 사라예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金在美(기약84-88 건국대 교수)=지난 11월 15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건반으로 기억되는 사랑'을 테마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또 12월 20일 일본 동경 국제현대음악제에서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로 초청 공연.

▲張有鎮(기약96-00 중앙대 강사·첼리스트)=지난 12월 16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비발디,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으로 첼로독주회 개최.

▲金泰完(ACAD 44기 한민족평화포럼 상임의장)=지난 11월 24일 충남 아산시 선문대 원화관에서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중국연변예술단 초청공연 개최.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이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사전 속에 잠자는

보배로운 우리말

－ 李應百 지음



한국어문회 李應百(국어교육 46-49 모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명에 이사장이 사전 속에 잠자

고 있는 보배로운 우리말을 찾아 정리한 책. 자연 및 동식물에 관한 어휘, 사람에게 관계되는 어휘, 의식주에 관계되는 어휘, 생업에 관계 있는 어휘 등 네 부문으로 분류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예문과 함께 재구성했다. 책 뒤에는 어휘의 ‘찾아보기’를 실어, 글이나 다른 자료에서 접하는 희귀한 말과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한글학회가 엮은 ‘우리말 큰 사전’(을유문화사刊)과 李熙昇의 ‘국어대사전’(민중서림刊)에서 고유어를 추려서 쉽게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리했다. <과위북刊·값8,000원>

■ 두벌이 반추(反芻)

－ 張潤宇 지음



한국 종이 접기협회 張潤宇(응용미술56-62 한국종이문화원장·성신여대 명예교수)회장의 열두 번

째 시집.

張동문은 6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겨울동양화’라는 시로 등단한 후 동양적 정서와 조형, 전쟁과 일상, 허무와 가족, 산과 풀, 술과 여행 등을 대상으로 삼아 대중과 접근하는 시를 써왔다.

그동안 시화전을 많이 열어온 張동문은 이번 시집에 인생행로를 뚜벅이 걸음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열심히 써온 70여 편을 선보였다. <목훈문화사刊·값9,000원>

■ 역사학의 철학

－ 李漢龜 지음



한국 분 석 철학회, 철학 연구회, 한국 철학회 회장을 역임한 성균관대 철학과 李漢龜(철학64-68) 교수가 선보이는 역사학에 대한 철학적 성찰.

비판적 합리주의 철학자인 李교수가 객관주의 역사학의 정당화를 위해 모든 상대주의와 대결을 벌인다.

이 책은 5부로 나뉘 1부에서는 사실재론적 역사인식론, 2부에서는 실재론적 역사인식론을 다룬다. 3부에서는 해석학적 이해와 과학적 설명의 통합이 필요함을 다루고, 4부에서는 사관은 역사세계에 대한 탐구의 중심틀임을 보여준다. 5부에서는 이성·유심·유물·문명 사관을 다루면서 역사관은 다양한 현상에 대한 설명력의 정도에 따라 평가됨을 밝힌다. <민음사刊·값25,000원>

■ 내가 만난 로마서의 복음

－ 都堧煥 지음

동원산업 이사, 영실업 상무 등



로마서를 통해 얻은 깨우침을 2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은 3부로 나뉘 1부는 로마서의 복음을 만나기까지의 방황과정을 다뤘다. 저자가 꽤 이름이 알려진 단체와 교회에 다니면서 느낀 소감들을 솔직해 놓았다. 2부에는 로마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에 대해 소개했으며, 3부는 로마서 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등 네 복음서의 복음을 서로 비교해 놓았다. 都동문은 네 복음서의 복음이 네 쪽의 퍼즐처럼 엮여져 완벽한 한 편의 그림을 이루는데, 그 조화로운 그림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이라고 설명한다. <대장간刊·값12,000원>

■ 우리말 지어쓰기와 외국어휘의 한글표기

－ 李義宰 지음



한글 세계화연구회 李義宰(금속공학66-70)회장이 현행 ‘외국어 표기법’의 문제를 분석하고 외국어말과 임시 외래 차용어를 빠르게 구별해 쓰는 방법을 소개했다.

한국어와 외국말과의 다른 점, 일상 생활에 마구 쓰이는 외래어

를 역임한 都堧煥(법학 68-72 예수교 대한감리회신학대학교 강사)동문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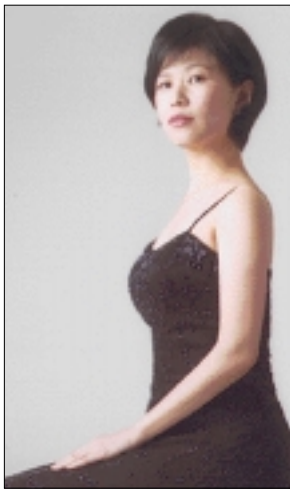
공연

■ 류진화 피아노 독주회

－ 1월 25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류진화(기악86-90)동문(사진)이 1월 25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바흐, 쇼팽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갖는다.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한 류진화동문은 현재 서울장신대, 그리스도대, 한영신대, 서원대, 예



원학교, 서울예고 등에 출강하고 있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 기획 586-0945>

와 외국말의 실태, 잘못 쓰이고 있는 외국어 등을 예를 들어 설명해 놓았다.

李동문은 나랏말 기본법이 2005년에 비로소 발효됨에 따라 명칭부터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휘 한글표기 규정’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전제 필수조건으로 ‘우리말 찾아·지어 쓰기’ 정신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월산방刊·값10,000원>

■ 우리나라 삼국지

－ 林東主 지음



도서출판 마야 대표이자 모교 수의대 초빙교수인 林東主(수의학 74-78)동문이 11년의 탐고기간

을 거쳐 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10권, 부록 1권)를 출간했다.

이 책은 중국의 삼국지와는 달리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역사를 다룬 우리나라 이야기로서 고증에 의한 실증적인 서술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의 눈으로 삼국을 바라본 역사소설이다. 주몽이 고구려를 창업하는 BC 37년부터 대조영이 발해를 세우기까지 8백 년이란 역사와 조상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1천2백여 명에 이르는 등장인물을 통해 입체적인 역사를 들려주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들을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묘사해 생생함을 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에서 林동문은 직접 ‘우리나라 삼국지’를 집필한 목적을 설명하고, 어떤 관점에서 썼는지,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야기한다.

모교 미대 동양화와 강사인 金鍾璇(회화74-80)동문의 삽화가 흥미를 더해준다. <도서출판 마야刊·각 권 값9,000원>

동문기자 취재수첩

편집국장의 24시, 이렇게 흘러간다

편집국장의 취재현장은 편집국이다. 일선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수십 가지 팩트(기사 재료)들이 취합돼서 데스크에 게로 넘어오고 최종적으로 기사로 표출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국장에게 모두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다. 편집국이란 현장엔 기자들이 만나는 취재현장과 똑같이 팩트를 찾기 위한 경쟁이 있고 기 싸움도 있으며 취재원과 갈등도 있다. 다리품을 파는 일은 아무래도 좀 드물지만 말이다.

인터넷 경제매체 이데일리 편집국의 하루는 뉴욕증시로부터 시작된다. 12월 XX일의 편집국을 한번 보자. 오전 6시 30분을 전후해 뉴욕특파원이 쓴 뉴욕증시 마감 상황이 톱 기사로 올라온다. 비슷한 시각 국제부 기자들이 출근해서 뉴욕특파원팀과 메신저를 통해 뉴욕 상황을 전달받는다. 오늘은 뉴욕증시가 폭락했다. 뉴욕 금융시장은 여전히 서브프라임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뉴욕특파원은 월가의 분위기를 전해준다.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에 다시 금리인하의 분위기가 팽배하다.”

편집회의의 시작시간은 8시 30분이다. 오늘 국내 증시는 뉴욕증시 폭락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최근 국내 금리 동향도 심상찮다는 시장부장의 보고가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6%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금리도 곱말대고 있다. 문제는 시중 자금의 이동 상황이다.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또는 펀드에서 은행권으로 자금 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인지 잠깐이지만 시장부장, 금융부장, 증권부장의 난상토론이 이어진다. 최근의 펀드 쏠림 현상, 달러화 약세, CD금리의 상승 메커니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머니 무브까지는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린다. 그렇지만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 하에 증권부와 시장부 공동기획으로 3편짜리 시리즈물 준비를 지시했다.

이어지는 경제부의 보고는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방향이다. 정부의 새해 경기전망은 그다지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당초 예상보다 하향수정됐다. 역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의 멘트가 나온다면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 환율도 정부의 구두개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부에서의 최대 이슈는 역시 金勇澈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건이다. 오늘은 金勇澈 변호사가 또 기자회견을 열기로 예정돼 있다. 현장에서 스트레이트 1건, 金勇澈 변호사의 주장과 삼성의 반응을 각각 한 쪽씩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제부에선 아시아시장을 주목해보고, 한국 코스피 시장동향과 연계해 기사를 처리할 것을 주문한다. 요즘 들어 국내 증시가 중국이나 홍콩증시와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져 뉴욕증시가 약세를 보였더라도 중국증시가 반등해주면 시장 심리가 안정될 수도 있다.

편집회의가 끝나면 증시 개장 시간. 오



李 宜 澈

(심리84-89)

이데일리 편집국장

전엔 예상대로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오후 들어서 金勇澈 변호사 기자회견 내용이 속보로 들어온다. 주장에 불과하지만 예상보다 내용이 세다. 계열사들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후속 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산업부장에게 지시하고 나면 어느새 오후 3시. 오후 편집회의의 시간이다. 오후 편집회의는 간단하게 진행상황만 체크한다. 때론 스탠딩 회의로 진행할 때도 있다.

마감시황을 완료하고 나니 산업부에서 익스클루시브(단독) 기사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하나로텔레콤 M&A건이다. SK텔레콤으로 매각이 확정됐었는데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서로 말이 엇갈리는 모양이다. 이 기사를 내일 아침에 낼 것

인지, 오늘 낼 것인지를 산업부장과 상의한다. 여타 매체에서도 취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위험하다. 실시간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니 오후 6시 30분이 넘었다.

공식적인 업무는 대체로 끝난 것 같다. 메신저를 과약해보니 퇴근하지 않고 있는 기자들이 20여 명 정도다. 메신저로 번개 모임을 소집한다. “시간 있으면 저녁이나 같이 하지.” 오늘 저녁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자는 5명이다. 그래도 지난번 번개(그때 단 두 명이었다)보다는 성적이 양호하다. 요즘 젊은 기자들은 저녁 모시기(?)가 쉽지 않다.

저녁 장소를 예약하고, 잔무를 정리하니 하루종일 긴장했던 피로감이 풀려온다. 오늘 처리한 기사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특종 기사를 생각하면 즐겁지만, 아쉬운 기사들도 많다. 이걸 박스기사로 다뤄야 했는데, 저건 제목이 좀 약한데... 5년 정도 끊었던 담배가 갑자기 피고 싶어진다.

기자들은 편집국장에겐 내부고객이나 다름없다. 기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고충을 듣고 하는 모든 일들은 따지고 보면 내부고객 만족이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술을 자제해야 하지만 요즘 기자들은 국장이 망가지는 것을 좋아해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저녁 자리가 파하고 나니 어느덧 11시. 이렇게 또 하루가 간다. 편집국장의 긴 하루도 간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기대한 성적 안 나온건 등급제 탓?

입시철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에 이어 각 대학의 정시모집 일정도 시작됐다. 수험생들과 학부모, 교사 진로와 당락, 논술고사 등 진학과 관련한 고민에 빠져드는 시기다.

언론들도 입시철 관련 보도로 분주하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수능 등급제 비판 기사들이다. 지면을 차지하는 양도 그렇고 기사 자체의 선정성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필자가 만나본 수험생들의 반응은 언론의 뜨거운 등급제 비판과는 온도차가 있었다. “구체적인 점수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등급제가 그렇게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가 대체적 반응이었다.

물론 등급에 걸려 아쉬워하는 학생들을 찾아내 ‘등급제 비판’ 기사를 만들어 낼 수야 있겠고 또 그것이 소위 ‘먹히는 기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말이다. 다른 기자들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등급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

수능 등급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첫째 논거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각 영역에서 모두 1점 차로 등급이 내려가 지원 가능 대학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등급제 도입 전엔 1점 때문에

대학에 지원 못하거나 낙방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말일까? 0.1점까지 따져 수험생들을 1등부터 60만등까지 줄 세울 때는, 등급에 걸쳐 있는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나름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비판 논거는 “1점 올리기 경쟁을 막는다며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현실은 1점으로 등급이 갈려 종전보다 더 점수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걸 일종의 심리학이다. 본인이 부담을 더 느낀다면 그런 것이겠지만, 웬지 내겐 ‘異狀 심리학’처럼 느껴진다.

등급제와 점수제 중 어느 쪽이 더 강의 팔기 노트를 안 빌려주게 하고, 동료를 경쟁자로 보게 만들까? 재수생, 삼수생까지 불러들여 총점제와 등급제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세 번째 논거는 “등급을 조합할 경우 성적 역전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총점으로 볼 때는 A가 B보다 우수하지만, 등급을 조합하면 B가 A보다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지적이지만 이를 바로 ‘총점제는 합리적이고 등급제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으로 이어가는 것은 성급하다. 한 과목은 1백점을 맞고 나머지 한 과목은 0



沈 勳

(국문99-06)

CBS 사회부 기자

점을 맞아 평균이 50점인 학생과, 두 과목 모두 50점을 받은 학생이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일까? 대학에서 수능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예를 들어 가산점제 적용이나 지원자격 제한(세 과목 이상 1등급을 받아야 지원 가능하다는 식으로)에 따라서, 총점에 따른 순위는 이미 뒤집혀 왔었고 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

등급제 비판은 상당부분 ‘사실보도’라

기보다는 ‘신념보도’라는 것이 내 판단이다. 다음은 등급제 비판 다음에 이어지는 ‘대안 아닌 대안들’이다.

“어떤 경우에도 선발은 점수다. 등급제를 폐지하고, 2007학년도 수능의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경쟁을 죄악시키는 평등주의적 평준화 정책으로는 어렵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하는 이유다. 등급제 과오의 시정 없이 내년 수험생들에게 올해와 같은 혼란을 다시 겪어는 안 된다.”

속내가 나온다. ‘느슨한 경쟁을 용납할 수 없고, 삼불정책 등 대학입시에 대한 정부의 규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중·고교생들의 입시를 둘러싼 ‘경쟁’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만 수험생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또는 사교육비 증가를 걱정해서, 등급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삼불정책도 폐지해야 할 판에 등급제 도입 웬 말이나”라고 주장하면 되는 것이다.

진로 결정으로 머리가 복잡한 수험생들에게 ‘기대하는 성적이 안 나온 것은 네 탓이 아니라 등급제 탓’이라고 속삭이는 것은 비겁하고 위험한 짓이다.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백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강신호(의학48-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희(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정식(통신공학48-56)

△김종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이준용(경제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자행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48-52)

△조기호(화학교육54-58)

·이영자(생물교육56-60)

◆ 2억원

△이종기(경영학69-73)

△장학순(토목공학46-50)

◆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촌5부자

◆ 1억1천만원

△수학과동창회

◆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故김영경(기계공52-56)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정현(건축학57-61)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성훈(기계공학58-63)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졸)

△안성철(행정학58-63)

·손윤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응현(섬유공67-71)

·추정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준행(섬유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욱(원예학83-87)

△보건대학원동창회

◆ 9천만원

△곽동현(법학61-65)

◆ 8천만원

△미술대학동창회

◆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엄병운(외교학60-64)

△화학공동창회

◆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중기(생물교육51-55)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명운(보대원74-76)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64)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종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1-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원규(농생물학58-63)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이종현(경제학59-65)

△이형도(화학공학61-67)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하상완(치의학64-70)

△홍예표(치의학65-71)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일산회:

김진의(축산학59-65)

△한우리SJM

◆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졸)

△박홍일(영어교육60-64)

△심형윤(토목공학52-56)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졸)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륜(농공학69-73)

△송명호(자원공학59-65)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치불회

◆ 1천2백만원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 1천1백만원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신면우(의학50졸)

△정해남(법학72-76)

◆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 1천6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박준옥(약학55-59)

◆ 1천만원

△강용현(법학71-78)

△강행연(토목공학61-65)

△권동은(I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준(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졸)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상호(법학72-76)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종(약학64-71)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중서(경제학58-63)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김찬욱(기계공학55-59)

△류태환(상학48-54)

△문대원(경영학71-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덕칠(기계공학57-61)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중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백사익(경성광전40-42)

△변상현(의학51-57)

△서계숙(기약56-60)

△석학진(상학58-64)

△설동섭(축산학53-57)

△성백전(토목공학52-56)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심이택(화학공학57-63)

△안경상(행정학57졸)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병재(경대원69졸)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석운(영어영문50졸)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재후(법학58-62)

△이전구(임학60-64)

△이종웅(기계공학65-69)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창원(법학55-60)

△이형하(법학74-78)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익용(기계공학54-58)

△장지준(의학70-77)

△조길웅(HPM 14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정길(금속공학52-56)

△최준기(조선항공57-61)

△표상기(원자력공61-65)

△하영기(정치학44-48)

△한규택(원자핵공73-77)

△故함인영(기계공학48졸)

△김준말(영어교육55-59)
△김지호(화학공학55-59)
△김진억(법학55-60)
△김진우(약학54-58)
△김창국(법학56-60)
△김태현(제약학71-75)
△김태흥(화학교육71-79)
△김풍오(원자력공8-72)
△김학균(약학51-55)
△김형기(불어교육72-76)
△김혜경(생물교육70-74)
△김호룡(법학48-52)
△김흥종(수학74-78)
△김화중(간호학63-67)
△김효종(법학61-65)
△김후란(가정교육53입)
△나도선(약학67-71)
△문광순(광산학60-64)
△문일환(치의학65-71)
△문창국(정치학68-72)
△박국양(의학75-81)
△박석흥(불어불문63-67)
△박성숙(의학65-71)
△박성철(법학75-79)
△박순억(치의학66-72)
△박승균(조선항공3-67)
△박영숙(CHCN 3기)
△박영원(지리학74졸)
△박영철(AMP 40기)
△박인원(의학76-83)
△박재형(의학66-72)
△박종철(물리학61-66)
△박준서(법학58-64)
△박태원(정치학46-50)
△박해룡(상학58-63)
△배기선(AIP 25기)
△배상경(경제학56-61)
△배영한(상학49-58)
△변영삼(금속공학77-81)
△변종문(공업교육72-76)
△서광벽(재료공학73-77)
△석준형(물리학67-71)
△손환규(농업교육64-68)
△송사일(농공학80-84)
△송종환(외과학64-68)
△송호룡(AIC 19기)
△신수정(기약59-63)
△신정균(농경제학54-58)
△신혜순(가정교육47-51)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신희명(물리교육49-54)
△심장수(법학70-74)
△심한배(공업화학71-76)
△안치득(전자공학76-80)
△양해준(식품공학82-86)
△양호석(농화학57-63)
△엄영섭(화학66-70)
△오경화(의류학81-85)
△오복동(법학57-63)
△오세종(경제학61-65)
△오태환(법학53-57)
△우병규(정치학51-55)
△우세홍(생물교육60-65)
△우완식(경제학57-61)
△우종호(중어중문60-64)
△우효섭(토목공학72-76)
△유필상(전기공학66-73)
△윤근환(농학50-54)
△윤옥영(수학58-61)
△윤용철(경영학83-88)
△윤용혁(독어교육60-64)
△윤원진(HPM 6기)
△윤재석(화학교육71-75)
△윤희식(물리교육56-60)
△이경렬(응용미술69-73)
△이경재(화학59-63)
△이광진(법학77-81)
△이근수(신대원69졸)
△이기봉(교육심리54-58)
△이기준(경제학55-59)
△이돈구(임학65-69)
△이동규(천문기상65-74)
△이두현(행대원74졸)
△이병목(의학54-60)
△이삼휘(농화학66-70)
△이상욱(경영학86-90)
△이상필(치의학70-76)
△이성호(AIP 32기)
△이영상(상학59-64)
△이용우(공업교육64-68)
△이인혁(섬유공학54-58)
△이일훈(상학55-60)

△이장무(기계공학63-67)
△이재식(교육학75-79)
△이정우(독어교육64-71)
△이종대(독어독문64졸)
△이종복(응용미술62-66)
△이주한(역사교육53-57)
△이중환(의학51-57)
△이창호(기계공학55-61)
△이철주(상학59-65)
△이충웅(통신공학54-58)
△이태형(상학59-63)
△이학숙(회화54-58)
△이현재(경제학48-53)
△이형근(정치학59-64)
△이호인(응용화학66-70)
△이희숙(영어교육61-65)
△이희호(교육학46-50)
△임광환(농경제학55-59)
△임승빈(건축학67-71)
△임한조(물리학67-71)
△장권봉(응용미술56-62)
△장성원(영어교육57-61)
△장원갑(기계공학63-67)
△장찬기(HPM 8기)
△장철식(섬유공학49-55)
△장해창(법학74-78)
△장해실(성악69-73)
△전병일(영어교육66-73)
△전정구(경제학51-56)
△전종갑(천문기상64-68)
△전팔근(영어교육47-52)
△정광현(독어교육71-78)
△정명희(의학65-71)
△정민섭(임학59-63)
△정병일(독어독문78졸)
△정병해(정치학49-53)
△정상조(행정학57-62)
△정소성(불어불문64-69)
△정영채(수의학56-60)
△정완호(생물교육58-63)
△정우식(항공공학80-84)
△정원식(교육학48-54)

△정정길(행정학61-65)
△정흥숙(가정교육59-63)
△정희준(법학57-61)
△조무제(사대원65-67)
△조병철(섬유공학59-65)
△조영찬(중어중문74-78)
△조완규(생물학48-52)
△조장환(농학53-60)
△조현래(사회사업73-77)
△지상구(약학54-58)
△지철근(전기공학45-51)
△진영춘(토목공학67-74)
△진홍일(외과학62-66)
△차원갑(화학공학48-53)
△최동식(법학76-80)
△최명재(상학48입)
△최병순(화학교육69-74)
△최종덕(물리학52-56)
△최종운(의학77-83)
△최환순(조선공학65-70)
△한 영(치의학79-85)
△함종한(농업교육63-70)
△현천욱(법학72-76)
△홍상희(응용물리65-72)
△홍성오(생물교육50-54)
△홍성완(토목공학62-66)
△홍순겸(AIP 5기)
△황선용(사회교육57-61)
△황성재(법학72-76)
◆80만원
△서병규(행대원88-92)
◆60만원
△김상원(농경제학52-56)
△부영욱(HPM 13기)
△여인철(조선공학75-79)
△이계홍(농공학56-62)
△이범구(물리학69-73)
△이병효(공업교육63-67)
△이정구(의학59-65)
△이찬구(상학56-61)
△이현구(화학공학58-62)
△최병주(생물교육56-60)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18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50만원
△김순철(국사학75-82)
△김형원(사회교육65-72)
△박건호(상학59-63)
△장낙순(SGS 10기)
△조덕찬(상학53-57)
△주종남(기계공학75-79)
△최창호(사법학84-88)
◆40만원
△정원박(대학원74-81)
◆35만원
△모영일(AFB 5기)
◆30만원
△김광희(작곡68-72)
△김종진(물리학58-62)
△김진동(국어국문58-64)
△김태완(ACAD 44기)
△김현수(농학55-62)
△도준호(철학61-65)
△박종영(의학72-78)
△원우식(경제학52-56)
△이대승(물리학66-71)
△이종숙(성악69-73)
△이흥식(수의학61-65)
◆20만원
△박순조(임학49-55)
△박재일(지리학60-65)
△안성준(국악65-69)
△안혜자(상학53-57)
△유용률(농생물학66-74)
◆11만원
△박명기(물리학57-63)
△박병근(대학원92-94)
△이영진(법학72-76)
△장익상(AMP 25기)
◆10만원
△고병걸(화학공학71졸)

△권순현(수의학76-84)
△권혁무(수의학82-86)
△김계주(조선항공57-63)
△김수진(물리학92-97)
△김용부(건축학54-58)
△김희용(행정학60-64)
△문병수(금속공학61입)
△변영숙(농기정학70-74)
△부원정(보대원05-07)
△서대운(상학62-66)
△서복선(의류학74졸)
△서준영(기계설계78-82)
△손현식(경영학92-98)
△송대호(전기공학64-72)
△송춘달(AMP 46기)
△양태덕(화학85-89)
△양호길(약학80-84)
△유경연(경영학95-99)
△윤기영(국어교육74-78)
△이규량(물리교육59-65)
△이소명(건축학00-04)
△이승현(국악87-91)
△이용우(사회교육55-59)
△이종길(국악85-90)
△이종렬(농학50-54)
△이주세(경영학83-87)
△이춘우(기약76-80)
△이현택(국어교육53-57)
△이형주(농화학66-70)
△이화진(경제학59-64)
△이휘자(불어교육60-64)
△이희환(역사교육56-61)
△임주원(환대원03-05)
△임채욱(사회학57-64)
△임현석(법학01-05)
△정수인(국악98-02)
△정희연(의학82-88)
△추은주(가정교육66-70)
△홍영화(공업교육66-75)
△황보순(불어불문57-61)
△황승희(응용미술69-73)

〈이상 2007년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동창회비 납부자 명단은 지면관계로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